

1

경험의 발견과 공감 [문학/듣기·말하기]

01 년 바보다 _ 시

02 나의 모국어는 침묵 _ 수필

03 공감하며 대화하기

꿈꾸는 소녀, 소년 _ 웹툰

대단원 학습 목표

- 자신의 가치 있는 경험을 개성적인 발상과 표현으로 형상화할 수 있다.
- 상대의 감정에 공감하며 적절하게 반응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소단원별 핵심 Point

01 년 바보다

- 가치있는 경험을 시로 나타내기 ☆☆
- 반어, 풍자, 운율의 특징과 효과 알기 ☆☆☆

02 나의 모국어는 침묵

- 역설의 특징과 효과 이해하기 ☆☆
- 가치 있는 경험을 글로 나타내기 ☆☆☆

03 공감하며 대화하기

- 상대방과 공감하며 대화하는 법 알기 ☆☆☆
-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는 대화의 필요성 알기 ☆☆☆





01 년 바보다

단원 맛보기

1 가치 있는 경험을 시로 표현하기

- ① 자신의 일상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떠올린다.
- ② 경험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탕으로 내용을 구성한다.
- ③ 반어·풍자·운율 등 다양한 문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로 표현한다.
- ④ 시를 평가 기준에 따라 점검한다.

중요 2 반어의 특징과 효과

- ① 뜻: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을 반대되게 나타내어 강조하는 표현
 - 예 장난치다가 꽃병을 깨뜨린 아이에게 어머니가 “잘한다, 잘해.”라고 말하는 경우
- ② 특징과 효과
 -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한다.
 -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강조한다.
 - 우회적으로 표현하여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중요 3 풍자의 특징과 효과

- ① 뜻: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인 현상, 모순, 어리석음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
 - 예 《토끼전》에서 토끼에게 속아 넘어가는 어리석은 용왕과 수궁 대신들을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
- ② 특징과 효과
 -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과 해학적 표현을 바탕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 읽는 이에게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게 하며 웃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 웃음 뒤에 숨어 있는 대상의 부정적인 모습이나 모순 등을 직시하는 통찰력을 갖게 한다.

중요 4 운율의 특징과 효과

- ① 뜻: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
 - 예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 풀 아래 웃음짓는 샘물같이
- 김영랑,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
- ② 특징과 효과
 - 같거나 비슷한 소리나 단어, 문장 또는 같은 문장 구조의 반복, 일정한 음보나 글자 수의 반복 등을 통해 형성된다.

같거나 비슷한 소리, 단어, 문장의 반복	해야 솟아라, <u>해야 솟아라</u> , 말갈게 씻은 얼굴 고운 <u>해야 솟아라</u> . - 박두진, <해>
일정한 음보의 반복	나 보기가 <u>ㅍ역겨워</u> <u>ㅍ가실</u> 때에는 말없이 <u>ㅍ고</u> 보내 <u>ㅍ드리우</u> 리다 - 김소월, <진달래꽃>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함.	<u>이</u> <u>몸</u> 이 <u>죽</u> 고 <u>죽</u> 어 <u>일</u> 백 번 <u>고</u> 쳐 <u>죽</u> 어 <u>3</u> <u>4</u> <u>3</u> <u>4</u> - 정몽주의 시조

- 음악적 효과를 바탕으로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 바른답·알찬풀이 3쪽

1 가치 있는 경험을 시로 표현하는 과정을 순서에 맞게 배열하시오.

- ㉠ 시를 기준에 따라 점검하기
- ㉡ 자신이 겪은 의미 있는 경험 떠올리기
- ㉢ 다양한 문학적 표현을 활용하여 시로 표현하기
- ㉣ 경험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바탕으로 내용 구성하기

2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

()은/는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나타내는 표현이다.

3 풍자의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시를 읽을 때 말의 가락을 느끼게 만든다.
- ② 문장 안에서 정상적인 어순을 뒤바꾸어 표현한다.
- ③ 같은 소리나 문장 구조 등을 반복함으로써 드러난다.
- ④ 대상에 대한 해학적 표현을 바탕으로 웃음을 유발한다.
- ⑤ 겉으로는 모순된 표현이지만 그 안에 중요한 진리를 함축한다.

4 운율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가락이다. ()
- (2)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는 효과가 있으나 말하는 이의 정서나 주제를 전달하지는 못한다. ()

이해와 탐구

1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의 내용 정리하기

(1) '나'의 눈에 비친 '너'의 모습 정리하기

'너'의 모습

- 찢던 껌을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 으로 가지 않고 빙 돌아 교문으로 다닌다.
- 얼굴에 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인사한다.
- 선생님이 가신다고 눈물을 흘린다.
- 보잘것없는 민들레에도 관심을 보인다.
- 친구의 도 진심을 다해 들어 준다.
- 놀림도 으로 받아넘긴다.

(2) 이 시의 2연을 바탕으로 '너'에 대한 '나'의 태도 알아보기

2연 — 그럼, 난 뭐냐?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 이 시의 2연에서 '나'는 '그런 네가 좋아서' 따라다니한다고 말하며 '너'에 대한 마음을 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나'가 '너'를 좋아한다는 것과, '너'를 으로 생각한다는 것,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이 시에 나타난 '나'의 깨달음을 알기

'나'의 경험

'나'는 '너'를 따라다니며 '너'가 착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모습을 하였다.

↓

'나'의 깨달음

'너'의 하고 따뜻한 마음 씩씩이에 감탄하였으며,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너'를 좋아한다.

! 학습 활동 응용

01 이 시에서 '나'가 관찰한 '너'의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친구가 놀려도 화내지 않고 웃는다.
- ② 선생님께서 전근 가신다고 눈물을 흘린다.
- ③ 개구멍으로 가지 않고 빙 돌아 교문으로 다닌다.
- ④ 혼자 있는 친구에게 먼저 다가가 말을 걸어 준다.
- ⑤ 얼굴에 검댕 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에게 인사를 한다.

02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시구는?

- ① 개구멍으로 속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 / 비잉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 ②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 ③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 ④ 바보라고 불려도 화내지 않고 / 씨익 웃어 버리고 마는 너는
- ⑤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03 이 시에서 '너'에 대한 화자의 태도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너'를 좋아한다.
- ② '너'를 닮고 싶어 따라다닌다.
- ③ 착한 '너'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 ④ 바르게 생활하는 '너'를 본받고 싶어 한다.
- ⑤ 바보같이 착한 '너'가 상처를 입을까 봐 걱정한다.

2 이 시에 쓰인 반어 표현의 특징과 효과

(1) 이 시의 표현에 담긴 '나'의 속마음과 반어 표현의 특징 정리하기

<p style="text-align: center;">이 시의 표현</p> <p style="text-align: center;">너는 참 바보다.</p>	↔	<p style="text-align: center;">'나'의 속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는 좋은 아이이다. • '너'는 정직하고 따뜻하고 순수하고 착한 아이이다.
--	---	--

→ 이 시의 '나'는 '너'를 좋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되는 '바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

반어 표현의 특징

'나'의 속마음을 되게 표현한다.

(2) 이 시에서 반어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알기

→ '반어 표현'을 사용하면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할 수 있다. 이 시에서는 '너는 참 바보다.'라는 반어 표현을 사용하여 '너'가 바르고 마음이 고운 아이라는 점과 닳고 싶은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3 이 시의 운율 형성 요소와 표현 효과

(1) 이 시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알아보기

- 소리, 단어, 구절 또는 문장의 반복: '정말', '바보'
- 같거나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너는 참 바보다.'

→ 운율은 시를 읽을 때 느껴지는 말의 으로, 주로 같거나 비슷한 시어나 시구 등을 반복함으로써 형성된다. 이 시에서는 '정말', '바보', '너는 참 바보다.' 등을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2) 운율이 주는 효과 정리하기

→ 운율은 음악적 효과를 바탕으로 하여 시의 분위기를 형성하며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시에서는 시어 및 시구를 반복하여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은 '나'의 마음과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하고 있다.

04 <보기>에 드러나는 표현 방법이 무엇인지 쓰고, 그 특징을 서술하시오.

보기

이 시의 표현

'너는 참 바보다.'

↓

'나'의 속마음

- '너'는 좋은 아이이다.
- '너'는 정직하고, 따뜻하고, 순수하고 착한 아이이다.

05 이 시에서 '나'의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한 것은?

- ① '나'의 긍정적인 성격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 ② '나'에 대한 '너'의 부정적 태도를 강조할 수 있다.
- ③ '나'와 '너'의 갈등 양상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 ④ '나'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인 '너'의 좋은 점을 강조할 수 있다.
- ⑤ '너'가 '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까닭을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06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넌 바보다〉에서는 시어와 시구의 ()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였다.

07 이 시에서 운율이 주는 효과로 알맞은 것은?

- ① '너'를 객관적으로 표현한다.
- ② '너'를 향한 '나'의 그리움이 효과적으로 드러난다.
- ③ 읽는 이에게 '너'의 행동에 비판의식을 갖게 한다.
- ④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은 '나'의 마음을 강조한다.
- ⑤ 자신이 살아온 삶을 반성하는 '나'의 태도를 강조한다.

4 시조에 쓰인 풍자 표현과 그 효과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 약자를 억압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풍자함.
 위쪽으로 날려 또는 위쪽으로 달려 올라가

건넌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끔찍하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백송고리 맷과의 하나, 매 종류 가운데 몸이 크며 성질이 굳세고 날쌘.
 두엄 아래에 자빠졌구나 →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두꺼비의 모습을 풍자함.

모처럼 날랜 나이니 망정이지 어혈 질 뻔했구나 → 두꺼비의 허세를 해학적으로 풍자함.
 마침(어떤 경우나 기회에 알맞게)의 옛말 타박상 따위로 살 속에 피가 맺힘. 또는 그 피

- 작자 미상

갈래	사설시조	성격	풍자적, 비탄적, 우의적
주제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세태의 풍자		
특징	• 자신보다 강한 사람에게 협력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 변명하는 두꺼비의 모습에서 탄원노자의 허세를 엿볼 수 있음 • 파리, 두꺼비, 백송골의 세 계층을 통해서 사회의 계층 격차를 풍자함 • 당시의 힘권오가들이 부패상을 은근히 조롱함.		



(1) 이 시에 나타난 두꺼비의 행동 정리하기

□□ 위에 앉아 □□을/를 물고 있음.

↓

□□□을/를 발견하고 무서워서 두엄에서 뛰어내림.

↓

두엄 아래에 □□□.

↓

자신의 몸이 날래기에 다치지 않았다고 변명함(잘난 척하며 허세를 부림).

(2) (1)을 바탕으로 두꺼비의 태도 파악하기

→ 약한 파리를 입에 물고 있다가 자신보다 강한 백송골을 보자 무서워 두엄에서 뛰어내리는 모습에서 □□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한 두꺼비의 비굴함이 드러난다. 또, 두엄 아래에 자빠졌으면서도 자신이 몸이 날래기에 다치지 않았다고 변명하는 모습에서 잘난 척하며 □□를 부리는 태도가 나타난다.

08 이 시조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부정적인 세태를 예둘러 표현하였다.
- ② 지배 계층에 대한 비판 의식이 담겨 있다.
- ③ 속마음과 반대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④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통해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⑤ 특정한 대상을 동물에 빗대어 우의적으로 표현하였다.

09 이 시조에 나타난 '두꺼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두꺼비는 힘없는 존재인 파리를 입에 물고 있다.
- ② 두꺼비는 파리를 잡기 위해 두엄 위에 올라 앉는다.
- ③ 두꺼비는 건넌산에 떠 있는 백송골을 발견하고 두려워한다.
- ④ 두꺼비는 백송골이 무서워 두엄 아래로 뛰어내리다가 자빠진다.
- ⑤ 두꺼비는 넘어지면서도 날랜 자신을 칭찬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

10 이 시조에서 드러나는 두꺼비의 태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에게는 약하다.
- ② 약자에게는 자비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③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한 모습을 보인다.
- ④ 강자의 횡포에 맞서 약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한다.
- 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강자나 약자를 가리지 않고 비굴한 모습을 보인다.

(3) 이 시조가 지어진 시대 배경에 대한 대화를 읽고, 시조에 등장하는 동물이 각각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하기

선생님: 시조를 읽으니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학생: 백송골이 무서워 넘어졌으면서도 허세를 부리는 두꺼비의 모습이 무척 우스웠어요.
 선생님: 그렇지요? 이 시조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보면 이 시조가 달리 보일 수 있어요. 이 시조가 지어진 조선 후기에는 백성들이 탐관오리들에게 큰 고통을 받았지요. 탐관오리들은 자신보다 더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는 아첨하거나 뇌물을 바치고, 힘없는 백성들은 못살게 굴었어요. 그러한 고통을 받은 백성들이 이 시조를 창작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시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특정한 인물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파리	두꺼비	백송골
□□	□□□□	더 힘이 있는 □□□

(4) 이 시조를 지은 작가의 의도 파악하기

→ 작가는 두꺼비로 표현한 인물에게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하고 있다.

(5) 이 시조에서 풍자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정리하기

→ 란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 현상, 모순, 어리석음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표현을 말한다. 이 시조에서는 비판 대상을 예들러 표현하며 을 유발하여 말하고자 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6) 이 시조를 끊어 읽는 부분을 참고하여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 정리하기

두꺼비 V 파리를 물고 V 두엄 위에 V 치달아 앉아 V
 건넛산 V 바라보니 V 백송골이 V 떠 있거늘 V 가슴이 V 끔찍하여 V 풀떡 뛰어 V
 내닫다가 V 두엄 아래에 V 자빠졌구나 V
 모쳐라 V 날랜 나이니 V 망정이지 V 어혈 질 뻘했구나

→ 이 시조는 일정한 를 반복하고 3~5자의 일정한 글자 수를 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11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이 시조에서는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에 빗대어 표현하여 그들의 부패상을 은근히 꼬집었다.

12 이 시조에 나타난 두꺼비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우스꽝스럽다.
- ② 점잖고 차분하다.
- ③ 다정하고 친절하다.
- ④ 단호하고 고집스럽다.
- ⑤ 객관적이고 냉정하다.

13 이 시조에서 풍자 표현을 사용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웃음을 유발하여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 낸다.
- ②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 ③ 시의 분위기를 주제와 어울리게 어둡고 무겁게 형성할 수 있다.
- ④ 독자들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대상에 대해 비판 의식을 갖게 한다.
- ⑤ 대상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않으면서도 문제를 드러낼 수 있다.

14 이 시조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를 모두 고르면? (정답 2개)

- ① 일정한 연의 반복
- ② 일정한 문장의 반복
- ③ 일정한 단어의 반복
- ④ 일정한 음보의 반복
- ⑤ 3~5자의 일정한 글자 수 반복

문제 해결과 적용

1 옥외 광고에 쓰인 표현



(1) 광고의 주제 파악하기

광고의 사진과 문구를 통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음.



광고의 주제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말자.

(2) 광고에서 사용된 표현과 그 효과 알기

광고 속 상황

- 경찰관이 어디로 급하게 가려고 하고 있음.
- 경찰이 어디론가 뛰어나가려 하는데, 남자가 수화기처럼 경찰의 을 붙잡고 있음.
- 어떤 남자가 장난기 있는 표정으로 경찰의 발을 붙잡은 채 하고 있음.



광고에 사용된 표현과 효과 표현을 사용해 을 유발하여 광고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었다.

(3) 반어 표현을 활용한 광고의 제목 짓기

- 허위 신고 덕분에 번개같이 출동합니다.
- 당신의 허위 신고 전화 감사합니다.

15 이 광고의 상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찰관이 어디로 급하게 가려고 하고 있다.
- ② 경찰서에 장난으로 전화하는 사람을 표현한 것이다.
- ③ 한 남자가 마치 수화기처럼 경찰의 발을 붙잡고 있다.
- ④ 경찰이 사람들의 신고 전화를 외면하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 ⑤ 남자의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보아 신고 내용은 심각하지 않을 것이다.

16 이 광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쓰시오.

17 이 광고에 쓰인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제시하였다.
- ②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여 의미를 강조하였다.
- ③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여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④ 광고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 ⑤ 의문 형식을 사용하여 보는 사람이 주제를 스스로 판단하도록 하였다.

18 이 광고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지었을 때 사용된 표현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당신의 허위 신고 감사합니다.

- ① 역설 표현 ② 은유 표현
- ③ 반어 표현 ④ 설의 표현
- ⑤ 직유 표현



수록 글 **한눈에** 쏙!

● 작품 개관

갈래	현대 시, 자유시, 서정시	성격	서정적, 교훈적, 반어적
제재	바보 같은 '너'	주제	바르게 살아가는 '너'를 본받고 싶은 마음
특징	① 모범적인 '너'의 행동을 열거한 뒤에 본받고 싶은 '□'의 마음을 드러냄. ② '너는 참 바보다.'를 반복하여 □□을 느끼게 함. ③ 화자의 마음을 □□로 표현하여 '너'의 바른 행동을 강조함.		

● 시의 짜임

1연
착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

2연
'너'를 좋아하고 본받고 싶은 '□'

학습 내용 **핵심** 꼭!

● 시에 드러나는 '나'의 경험과 태도

'나'의 눈에 비친 '너'의 모습	• 씹던 껌을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림.	• 보잘 것 없는 민들레에도 관심을 보임.
	• 개구멍으로 가지 않고 빙 돌아 □□으로 다님.	• 친구의 허풍도 진심을 다해 들어 줌.
	•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인사함.	• 놀림도 □□으로 받아넘김.
	•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을 흘림.	



'너'에 대한 태도
→ '너'를 좋아함. / '너'를 □□□□으로 생각함. /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어 함.

● 반어의 표현 방법과 효과

1연	모범적인 행동을 하는 '너'에 대해 '너는 참 바보다.'라고 □□□□으로 평가함(겉으로 드러나는 말).
2연	'나는 그런 '너'를 좋아한다고 밝혀 '너는 참 바보다.'가 반어 표현임을 드러냄(속마음).



표현 효과
'너'가 바르고 마음이 고운 아이이며, 닳고 싶은 존재라는 점이 □□됨.

● 운율의 표현 방법과 효과

소리 또는 문장의 반복	바보, 정말	같거나 비슷한 문장의 반복	너는 참 □□다.
--------------	--------	----------------	-----------



표현 효과
• '너'의 행동을 □□□□ 싶은 '나'의 마음을 강조함.
• 말하고자 하는 바를 □□함.

● 풍자의 개념과 표현 효과

개념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 현상, 모순, 어리석음 등을 □□□□으로 비판하기 위해 □□□□을 사용하는 표현 방법을 말함.
표현 효과	예) <두꺼비 파리를 물고~>라는 시조에서 두꺼비를 통해 백성을 괴롭히는 탐관오리를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풍자함. → 읽는 이에게 대상에 대한 □□□□을 갖게 하며 웃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함.



[01~05]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씹던 껌을 아무 데나 댄, 빨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개구멍으로 속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비잉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얼굴에 검댕 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짙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 주는
 너는 참 바보다.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씨익 웃어 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정말 바보다.
 — 그럼, 난 뭐냐?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 학습 활동 응용

0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외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② 공간의 이동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사회 문제에 대한 비판 의식이 드러나 있다.
- ④ 시어와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⑤ 인물의 행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열하고 있다.

• 학습 활동 응용

02 이 시의 '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탄장수 아저씨에게도 인사를 한다.
- ② 일부러 돌아서 교문 옆 개구멍으로 다닌다.
- ③ 씹던 껌은 꼭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에 버린다.
- ④ 무서운 선생님이 전근을 가실 때도 눈물을 흘린다.
- ⑤ 친구가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머리를 끄덕여 준다.

• 학습 활동 응용

03 '너는 참 바보다.'에 담긴 '나'의 속마음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너'는 참 좋은 아이이다.
- ② '너'는 순수하고 착한 아이이다.
- ③ '너'는 정직하고 따뜻한 아이이다.
- ④ '너'는 바른 행동을 하는 아이이다.
- ⑤ '너'는 어리석은 면이 있는 아이이다.

04 1연에서 <보기>와 유사한 표현 방법이 사용된 시구 두 개를 찾아 쓰시오.

• 보기

할머니께서 귀엽게 생긴 동네 꼬마를 보고 “고 녀석 참 알밋게도 생겼구나.”라고 말씀하시며 웃으셨다.

• 서술형 • 학습 활동 응용

05 이 시를 통해 '나'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너'의 특징과 그런 '너'에 대한 '나'의 심리를 포함할 것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쓸 것

[06~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 두꺼비 ㉡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넛산 바라보니 ㉢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끔찍
 하여 풀뚝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에 자빠졌구나
 모쳐라 날랜 나이니 망정이지 어혈 질 뻔했구나

나 선생님: 시조를 읽으니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학생: ㉢ 백송골이 무서워 넘어졌으면서도 허세를 부리는
 두꺼비의 모습이 무척 우스웠어요.

선생님: 그렇지요? 이 시조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보면 이
 시조가 달리 보일 수 있어요. 이 시조가 지어진 조선 후
 기에는 백성들이 탐관오리들에게 큰 고통을 받았지요.
 탐관오리들은 자신보다 더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는 아
 침하거나 뇌물을 바치고, 힘없는 백성들은 못살게 굴었
 어요. 그러한 고통을 받은 백성들이 이 시조를 창작했
 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시조에 등장하는 동물들
 은 특정한 인물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 학습 활동 응용

06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② 질문하는 방식을 통해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③ 일정한 음보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주고 있다.
- ④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 모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 ⑤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학습 활동 응용

07 (나)를 참고하여 (가)의 ㉠~㉢이 각각 비유하는 대상을 쓰시오.

㉠ 두꺼비	㉡ 파리	㉢ 백송골

08 ㉢이 드러나는 부분을 (가)에서 찾아 쓰시오.

▶ 학습 활동 응용

09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특정 행동에 대해 비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 ② 광고 속 두 인물의 모습을 통해 주제를 짐작할 수 있다.
- ③ 아무리 급해도 경찰서에 전화를 하지 말자는 내용을 전달하려는 광고이다.
- ④ 광고의 문구와 상황으로 보아 남자가 장난 전화를 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 ⑤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들로 인해 긴급하게 출동하지 못하는 경찰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10 (가)와 (다)에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표현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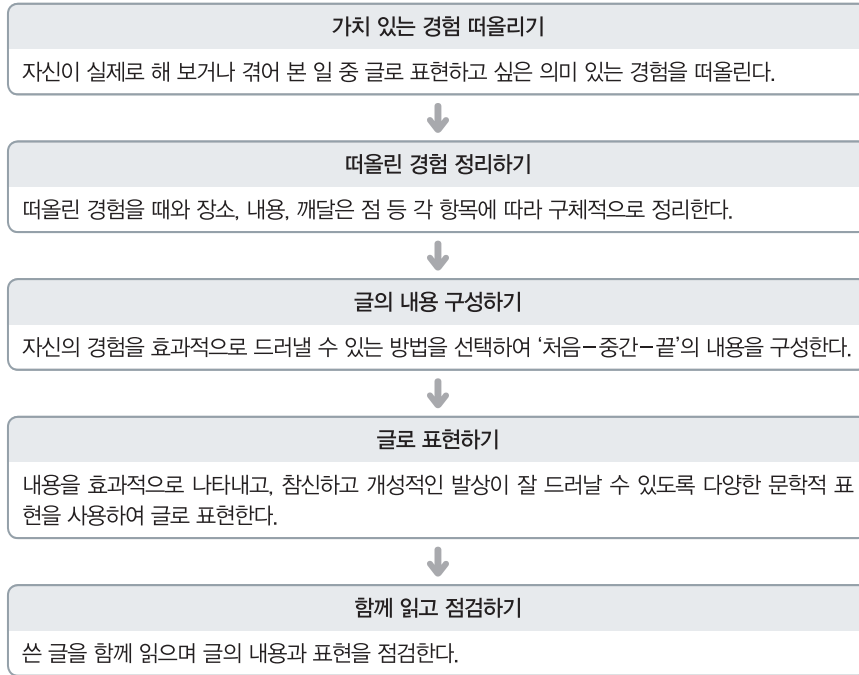
- ① 말하고자 하는 바와 정반대로 표현하고 있다.
- ② 후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대상을 표현하고 있다.
- ③ 사람이 아닌 것을 마치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
- ④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해서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 ⑤ 일정한 요소를 반복적으로 제시하여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02 나의 모국어는 침묵

단원 맛보기

중요 1 가치 있는 경험을 글로 표현하기



중요 2 역설의 특징과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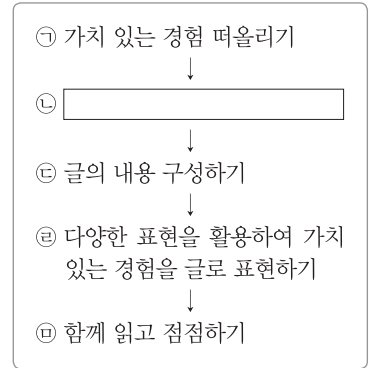
- ① 뜻: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
- ② 특징과 효과
 - 대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참신하고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다.
 - 표현에 담긴 사실이나 진리를 강조하여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 표현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모순되는 사물이나 관념을 연결해, 읽는 이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다.

③ 예

- 님은 갔지만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한용운, <님의 침묵>
→ 실제로는 '임'이 떠났지만 마음속으로는 '임'을 떠나보내지 않았다는 의미로 임을 사랑하는 변함없는 마음을 표현함.
- 모란이 피기까지는, /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 '찬란한'은 '모란이 피었을 때의 환희'를, '슬픔'은 '모란이 지고 닳았 때의 설움'을 의미하는데, 모란이 지는 슬픔을 알면서도 모란이 피는 기쁨이 있기에 모란에 대한 기다림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함.
-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서정주, <견우의 노래>
→ 이별을 통해 사랑이 더욱 성숙해진다는 깨달음을 표현함.
-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정지용, <유리창 1>
→ 어린 자식을 잃고 아버지로서 느끼는 애절한 슬픔을 노래한 작품으로, 밤에 유리를 닦으며 느낀 '외로움'과 유리창에서 죽은 아이의 환영을 보며 느낀 '황홀함'의 감정이 교차함.

★ 바른답·알찬풀이 5쪽

1 가치 있는 경험을 글로 쓰는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을 때, ㉠에 들어갈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2 역설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겉으로 보았을 때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평범한 표현이다. ()
- (2) 표현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진리가 함축되어 있다. ()

3 역설 표현의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대상을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게 한다.
- ②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참신하게 전달할 수 있다.
- ③ 표현에 담긴 사실이나 진리를 강조하여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 ④ 읽는 이에게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게 하며 웃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한다.
- ⑤ 표현의 단조로움을 피하고 모순되는 사물이나 관념을 연결해, 읽는 이에게 신선함을 준다.

4 역설 표현이 드러나지 않은 것은?

- ① 내 마음은 호수요
- ② 찬란한 슬픔의 봄을
- ③ 임은 갔지만 나는 임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 ④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⑤ 우리들의 사랑을 위하여서는 / 이별이, 이별이 있어야 하네.



▶ 나의 모국어는 침묵

가 한국을 떠나 미국의 애리조나주 투손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인디언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핵심 1 드러나지 않게 가만히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꼴꼴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천막 안이 어슴푸레해서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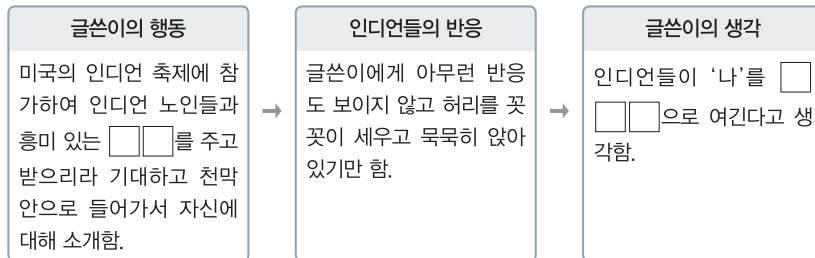
빛이 약하거나 멀어서 어둡하고 희미해서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다. 아마도 그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축제에 참석한, 잘난 체하는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 타는 일로 여길 법도 했다. 결국,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천막마다 구부리고 들어가느라 허리만 뻗근했다.

→인디언 축제에서 기대와 다르게 인디언들이 글쓴이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음.

핵심 속독

처음: 인디언 축제에서 인디언들로부터 침묵의 응대를 받게 됨.



나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①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고는 했다.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오 분이고 십 분이고 앉아 있었다.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미처 몰랐다.

핵심 2 불임성이 없고 까다롭고 별나고

어쨌거나 인디언들과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였다. 그들은 땅을 사랑하고, 벌레들이 날개 치는 소리를 사랑하고, 한겨울 들소의 코에서 나오는 덧없는 입김을 사랑했다. 그 세계에 이끌린 나머지,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자주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나 역시 머리를 땅고 인디언 팔찌를 하고 다녔다.

01 작가 소개

류시화(1959~)

시인, 명사가. 1980년 〈아침〉이라는 시가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대표 저서로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림자》, 《하늘 호수로 떠난 여행》 등이 있다.

→ 제대로 독해 & 문제로 확인

핵심 1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 ①

글쓴이의 경험

인디언들에게 침묵의 응대를 받고 자신을 불청객으로 여긴다고 생각함.



경험을 통한 깨달음

대화를 시작하기 전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은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임을 깨달음.

교과서 날개

'나'는 인디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

1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글쓴이는 인디언 축제에 참가하였다.
- ② 글쓴이는 인디언들에게 자신을 소개하였다.
- ③ 인디언들은 글쓴이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④ 인디언들은 글쓴이를 잘난 체하는 불청객으로 생각하였다.
- ⑤ 글쓴이는 인디언들과 흥미 있는 대화를 나눌 것을 기대했다.

핵심 2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 ②

글쓴이의 경험

누군가를 만날 때 인디언들 흉내를 내다가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음.



경험을 통한 깨달음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알게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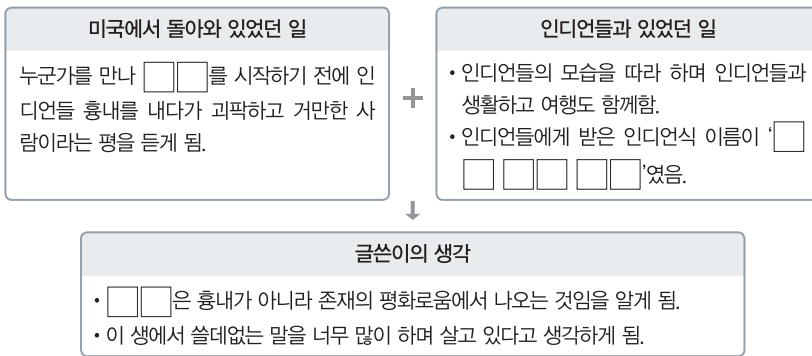
2 글쓴이가 ①을 통해 깨달은 점을 한 문장으로 쓰시오.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두 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 그중의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해’였다. 내가 될 얼마나 떠들었기에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는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너무 많이 따져’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될까 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 없이 넘쳐났다. **해님 3**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 침묵이 인디언 부족의 전통임을 알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함.

핵심 속삭 중간: 침묵이 인디언 부족의 전통임을 알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함.



다 라코타족 인디언인 ‘서 있는 꿈’은 말한다. 미국 인디언 부족의 하나. ‘라코타’는 그들의 언어로 ‘침구’, ‘동맹자’ 등을 의미함.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었다.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족마다 언어도 매우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하곤 했다.

해님 4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 인디언들에게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되새김.

핵심 속삭 끝: 인디언들에게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되새김.

‘침묵’에 대한 인디언들의 생각

- □□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이 진정한 예의임.
-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음.
- 침묵은 온전히 듣고 알고 느끼기 위한 또 하나의 언어임.
-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말보다 □□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의미

해님 3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 ③

글쓴이의 경험
인디언들로부터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인디언식 이름을 얻음.



경험을 통한 깨달음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돌아봄.

교과서 날개 인디언식 이름을 바탕으로 하여 추측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일까?

3 글쓴이의 경험을 통해 추측할 수 있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인디언들의 세계에 관심이 많다.
- ② 글쓴이는 인디언들의 삶의 방식을 좋아한다.
- ③ 인디언들과 글쓴이는 초반에는 갈등을 겪기도 했다.
- ④ 인디언식 이름은 그 사람의 특징을 바탕으로 짓는다.
- ⑤ 인디언들의 기준에서 글쓴이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해님 4 ‘침묵’에 대한 인디언들의 생각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역설 표현으로, ‘침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디언들의 생각이 담김.

4 ‘침묵’에 대한 인디언들의 생각이 역설 표현을 통해 드러나는 문장을 찾아 쓰시오.

이해와 탐구

1 글쓴이의 경험과 깨달음

(1) 글쓴이의 경험과 그에 따른 깨달음을 정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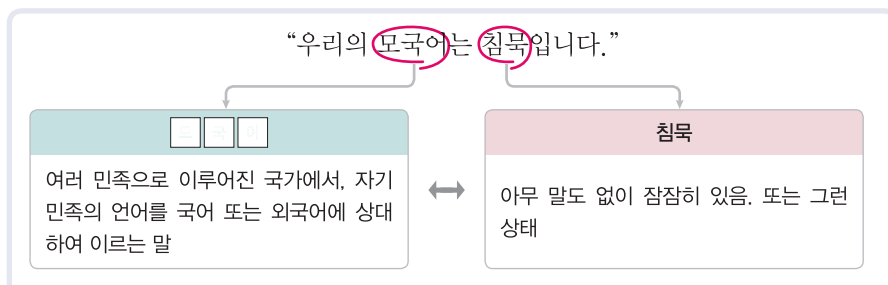
글쓴이의 경험	그에 따른 깨달음
인디언 축제에서 인디언들과 만났으나 인디언들이 아무런 □□을 보이지 않음.	자기 앞에 있는 □□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 흉내를 낸 결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들음.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
인디언들에게 ‘너무 많이 □□’라는 인디언식 이름을 얻음.	자신은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음.

(2) (1)을 바탕으로 이 글에 나타난 ‘침묵’의 의미 알기

→ □□은 자기 앞에 있는 □□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이 글에 쓰인 역설 표현과 그 효과

(1) 역설 표현이 드러난 문장의 의미 파악하기



→ ‘모국어’의 사회적 의미는 ‘여러 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에서, 자기 민족의 언어를 국어 또는 외국어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즉 말은 의사소통을 위한 수단인데, ‘□□’은 ‘아무 말도 없는 상태’라는 뜻이므로 모국어가 침묵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 □□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속에는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2) 이 글에서 역설 표현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 알기

→ 전하고자 하는 바를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학습 활동 응용

01 <보기>의 경험을 통해 글쓴이가 깨달은 바를 쓰시오.

보기
인디언들에게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인디언식 이름을 얻은 일

02 글쓴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할 때 인디언들에게 ‘침묵’이 의미하는 것은?

- ① 자신을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
- ② 존재의 무의미함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
- ③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
- ④ 상대방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 ⑤ 상대방이 가진 약점을 가장 효과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방법

03 다음 문장에 쓰인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 ① 대상을 의인화하여 특성을 강조하였다.
- ② 행동보다 말이 앞서서 세태를 비판하기 위해 풍자 표현이 쓰였다.
- ③ 상대를 배려하는 말을 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반어 표현이 쓰였다.
- ④ 의사소통에서 경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의문형 문장이 쓰였다.
- ⑤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를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역설 표현이 쓰였다.

04 역설 표현을 써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2) 어떤 상황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표현할 수 있다. ()

문제 해결과 적용

1 만화의 상황에 맞는 역설 표현의 활용



(1) 만화의 내용 정리하기

등장 인물 와 딸

공간적 배경 열람실

상황 아버지가 딸에게 도서관에서는 다른 사람이 책 읽는 데 방해가 되므로 조용히 해야 한다고 했는데, 주변을 보니 사람들이 책 대신 에만 집중하고 있다.

(2) ㉠을 역설 표현으로 바꿔 쓰기

→ 을 읽지 않는 도서관이구나.

05 이 만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등장인물은 아빠와 딸이다.
- ② 장소는 도서관 열람실이다.
- ③ 도서관 이용자들이 책을 읽지 않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다.
- ④ 딸은 아빠에게 자신도 스마트폰이 가지고 싶다고 말하였다.
- ⑤ 아빠는 도서관에서 떠들면 다른 사람들이 책을 읽는 데 방해가 된다고 딸에게 말해 주었다.

06 다음 아빠의 말을 역설 표현으로 바꾼 것으로 알맞은 것은?

-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구나.
- ① 책을 읽지 않는 도서관이구나.
 - ② 스마트폰 중독 문제가 심각하구나.
 - ③ 도서관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겠구나.
 - ④ 스마트폰이 있으면 도서관에 굳이 올 필요가 없겠구나.
 - ⑤ 사람들이 도서관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07 아빠의 말을 역설 표현으로 바꾸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쓰시오.

08 역설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문장의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
- ②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조하여 전달하기 위해
- ③ 독자의 주의를 끌고 참신한 느낌을 주기 위해
- ④ 이치에 맞는 표현 안에 모순되는 의미를 담기 위해
- ⑤ 단순한 진술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수록 글 **한눈에** 쏙!

● 글의 개관

갈래	수필(경수필)	성격	고백적, 성찰적, 역설적
제재	침묵, 언어	주제	침묵의 진정한 의미
특징	① 자신의 □□에서 얻은 생각을 독백체의 형식으로 표현함. ② 친근한 어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여 독자에게 □□과 깨달음을 줌. ③ □□ 표현이 나타난 인디언의 말을 인용하여 중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강한 인상을 줌.		

● 글의 짜임

처음	중간	끝
인디언 축제에서 인디언들로부터 □□의 응대를 받게 됨.	침묵이 인디언 부족의 □□임을 알고 자신의 □□ 습관을 성찰함.	□□□들에게 침묵이 의미하는 바를 되새김.

학습 내용 **핵심** 꼭!

● 글쓴이의 경험과 그에 따른 깨달음

글쓴이의 경험 ①	글쓴이의 경험 ②	글쓴이의 경험 ③								
<table border="1"> <tr> <td>글쓴이의 기대</td> <td>인디언의 반응</td> </tr> <tr> <td>인디언들과 흥미 있는 □□를 주고받을 것임.</td> <td>허리를 세우고 앉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음.</td> </tr> </table>	글쓴이의 기대	인디언의 반응	인디언들과 흥미 있는 □□를 주고받을 것임.	허리를 세우고 앉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음.	<table border="1"> <tr> <td>글쓴이의 행동</td> <td>사람들의 반응</td> </tr> <tr> <td>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냄.</td> <td>아주 괴팍하고 □□한 사람이라고 평을 함.</td> </tr> </table>	글쓴이의 행동	사람들의 반응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냄.	아주 괴팍하고 □□한 사람이라고 평을 함.	인디언들에게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인디언식 이름을 얻음.
글쓴이의 기대	인디언의 반응									
인디언들과 흥미 있는 □□를 주고받을 것임.	허리를 세우고 앉아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음.									
글쓴이의 행동	사람들의 반응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냄.	아주 괴팍하고 □□한 사람이라고 평을 함.									
↓	↓	↓								
<table border="1"> <tr> <td>글쓴이의 깨달음</td> </tr> <tr> <td>대화를 시작하기 전 한동안 □□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은 인디언 부족의 전통임.</td> </tr> </table>	글쓴이의 깨달음	대화를 시작하기 전 한동안 □□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은 인디언 부족의 전통임.	<table border="1"> <tr> <td>글쓴이의 깨달음</td> </tr> <tr> <td>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 □□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td> </tr> </table>	글쓴이의 깨달음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 □□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	<table border="1"> <tr> <td>글쓴이의 깨달음</td> </tr> <tr> <td>살면서 쓸데없는 □□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고 있음.</td> </tr> </table>	글쓴이의 깨달음	살면서 쓸데없는 □□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고 있음.		
글쓴이의 깨달음										
대화를 시작하기 전 한동안 □□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은 인디언 부족의 전통임.										
글쓴이의 깨달음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 □□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										
글쓴이의 깨달음										
살면서 쓸데없는 □□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고 있음.										

● 역설 표현과 그 효과

역설 표현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의미	'모국어'는 '자기 민족의 언어'를 뜻하는데 '침묵'은 '아무 말도 없는 상태'를 뜻하므로 모국어가 침묵이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된 표현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효과	인디언들은 □□보다 침묵을 통해 상대방과 더 큰 교감을 나눈다는 사실을 □□□□으로 표현함.



[01~0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한국을 떠나 미국의 애리조나주 투손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인디언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나 그런데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꼴꼴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천막 안이 어슴푸레해서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다. 아마도 그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축제에 참석한, 잘난 체하는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 타는 일로 여길 법도 했다. 결국,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천막마다 구부리고 들어가느라 허리만 빼근했다.

다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달고 있었다.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고는 했다.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오 분이고 십 분이고 앉아 있었다.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미처 몰랐다.

라 어쨌거나 인디언들과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들은 땅을 사랑하고, 벌레들이 날개 치는 소리를 사랑하고, 한겨울 들소의 코에서 나오는 덧없는 입김을 사랑했다. 그 세계에 이끌린 나머지,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자주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나 역시 머리를 땅고 인디언 팔찌를 하고 다녔다.

01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백적이고 성찰적인 성격을 띤다.
- ② 글쓴이의 경험과 그에 따른 깨달음이 드러난다.
- ③ 형식적인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이다.
- ④ 글쓴이가 겪은 다양한 갈등이 단계별로 흥미롭게 드러난다.
- ⑤ 글쓴이의 체험에서 얻은 생각을 독백체의 형식으로 표현하였다.

▶ 학습 활동 용량

02 이 글에 나타난 글쓴이의 경험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인디언들과 흥미로운 대화를 주고받았다.
- ② 미국에서 열린 인디언 축제에 참가하였다.
- ③ 인디언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 ④ 인디언 부족들에게 먼저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였다.
- ⑤ 미국에서 돌아온 후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 흉내를 내고는 했다.

▶ 서술형

03 (다)를 참고하여 인디언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 조건

- 이 글에 나오는 표현을 활용할 것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쓸 것

▶ 학습 활동 용량

04 이 글의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달은 바로 적절한 것은? (정답 2개)

- ① 침묵은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온다.
- ② 상대방을 느끼려면 진심을 담은 대화가 필요하다.
- ③ 대화를 마무리할 때에는 적절한 침묵이 필요하다.
- ④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침묵하는 것은 거만한 행동이다.
- ⑤ 누군가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침묵으로 상대를 느끼는 것은 인디언 부족의 전통이다.

[05~0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두 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 그중의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해’였다. 내가 될 얼마나 떠들었기에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는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너무 많이 따져’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될까 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 났다.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라코타족 인디언인 ‘서 있는 꿈’은 말한다.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었다.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족마다 언어도 매우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하곤 했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05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인디언들은 침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 ②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 ③ 인디언 부족들은 하나의 모국어를 가지고 있다.
- ④ 글쓴이는 인디언들에게서 두 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
- ⑤ 인디언들은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을 때 침묵한다.

06 ㉠의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인디언들은 글쓴이에 비해 말을 적게 한다.
- ② 인디언들은 글쓴이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한다.
- ③ 글쓴이는 인디언들처럼 침묵하는 데 익숙하다.
- ④ 글쓴이는 인디언들의 언어를 더 공부해야 한다.
- ⑤ 글쓴이는 인디언들과 거의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서술형

07 (가)를 통해 알 수 있는 인디언식 이름을 짓는 방법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조건

- 글쓴이가 인디언들에게서 얻은 인디언식 이름과 그들의 눈에 비친 글쓴이의 모습을 참고할 것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쓸 것

08 ㉡과 같은 표현 방법을 활용하여 (나)의 ㉢을 바꾸어 쓴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책을 읽는 사람이 없구나.
- ② 책을 읽지 않는 도서관이구나.
- ③ 모두 열심히 책을 읽고 있구나.
- ④ 내가 책 읽는 사람들을 방해했구나.
- ⑤ 모두 스마트폰에만 집중하고 있구나.



03 공감하며 대화하기

★ 바른답·알찬풀이 6쪽

단원 맛보기

1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뜻

- 공감: 상대방의 경험, 감정, 의견 등에 대하여 자기도 그렇다고 느끼는 것, 또는 그렇게 느끼는 기분을 뜻한다.
- 공감하며 대화하기: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대화를 말한다.

1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으로 소통하기 위한 대화이다.

2 공감하며 대화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으면 ○표, 틀리면 ×표를 하시오.

- (1) 상대방의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
- (2) 상대방과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
- (3) 상대방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

3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한다.
- ②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친다.
- ③ 상대방이 말을 이끌어 낼 수 있게 격려한다.
- ④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 ⑤ 상대방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한다.

4 공감하며 대화할 때 유의할 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의 처지와 생각을 이해한다.
- ② 상대방의 의견이나 가치관을 존중한다.
- ③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④ 명령적이고 단정적인 어조와 단호한 태도로 말한다.
- ⑤ 비언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의 말에 적절하게 반응한다.

중요 2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효과

-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 대화 상대방과의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중요 3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필요성

공감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대화하는 경우	일방적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면 상대방은 상처를 입거나 대화를 중단할 수 있다.
↓	
공감하며 대화하는 경우	상대방이 자신의 상황이나 처지에 공감하고 진심으로 이해해 준다고 느껴 마음의 문을 열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음.

중요 4 공감하며 대화하기의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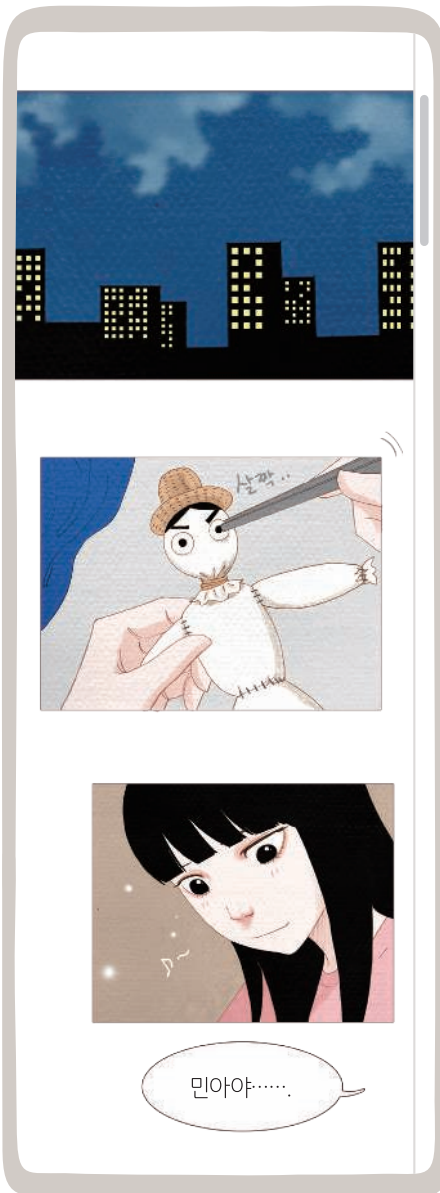
관심 표현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는 반응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눈 맞춤, 고개 끄덕임 등 •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그래.', '정말?', '그랬구나!' 등 • 상대방이 말을 이끌어 낼 수 있게 격려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좀 더 이야기해 봐.', '계속 말해 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겠니?' 등
재진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 것같이 느껴져서 속상했구나.', '~ 때문에 힘들었구나.' 등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 '나도 ~한 경험이 있어.', '나도 비슷한 고민을 한 적이 있어.' 등

5 공감하며 대화할 때 유의할 점

- 상대방의 처지와 생각,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 등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명령적이고 단정적인 어조보다는 제안하고 요청하는 어조와 공손하고 진지한 태도로 말한다.
- 상대방의 말을 분석하고 비판하기보다는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들어려고 노력한다.
- 언어 표현뿐만 아니라 표정, 자세, 행동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도 고려하여 상대방의 말에 적절히 반응하며 듣는다.

▶ 공감하며 대화하기

이해와 탐구



제대로 독해 & 문제로 확인

해님 1 인물이 처한 상황과 입장

민아	과제물을 자신의 힘으로 만들고 싶어 함.
민아	민아가 공부가 아닌 것에 시간을 빼앗기는 것이 걱정되어 과제물을 대신 해 주고 싶어 함.



엄마가 갑자기 낚아채서 민아의 과제물이 망가짐.

1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은?

- ① 민아는 발표회에 필요한 과제물을 만들고 있다.
- ② 민아는 엄마가 발표회 준비를 도와주지 않아 서운하다.
- ③ 민아는 발표회에서 쓸 인형을 자신이 직접 만들고 싶어 한다.
- ④ 엄마는 민아가 공부가 아닌 다른 것을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⑤ 엄마가 민아의 과제물을 갑자기 낚아채서 과제물이 망가지고 말았다.

해님 2 엄마의 대화 태도

민아의 의견을 끝까지 듣지 않고 민아가 하던 발표회 준비를 대신 해주겠다고 공부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민아를 배려하지 못한 행동

2 이 장면에 나타난 엄마의 태도에 해당하는 것을 골라 그 기호를 쓰시오.

- ㉠ 민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 ㉡ 민아의 감정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 ㉢ 민아의 말에 맞장구치며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 민아의 의견을 묻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있다.



내가 한다고 했잖아!

왜 함부로 만지고 그래?



그, 그러기에 엄마가 달라고 할 때 줬으면 됐잖아?

이리 줘, 엄마가 고쳐 줄게.



왜 이런 쓸데없는 데다 시간을.....

그걸 왜 엄마가 정하는데?

뭐?



나한테 쓸데 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어떻게 알아?

왜 알지도 못하면서 멋대로 하고.....

행낭 3 민아가 엄마에게 화가 난 까닭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가 낚아채는 바람에 과제물이 망가졌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자신의 입장만 말함. • 엄마가 과제물 만드는 것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함.



화가 난 까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엄마가 민아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민아가 하는 일을 쓸데없는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임. •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도 엄마가 간섭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임.

교과서 날개 민아가 엄마에게 화를 내는 까닭은 무엇일까?

3 민아가 엄마에게 화를 내는 까닭이 아닌 것은?

- ① 엄마가 자신이 만든 인형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 ②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③ 엄마가 자신이 하는 일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 ④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에 엄마가 간섭을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 ⑤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고 엄마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행낭 4 인물들의 대화 태도

민아	민아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만으로 이야기함.
엄마	엄마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버릇없이 쓰아붙임.

4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엄마는 자신만의 ()으로 민아가 과제를 만드는 것을 () 일이라고 여기고, 민아는 자신을 ()하는 엄마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은 채 화를 내며 ()없이 쓰아붙이고 있다.



해닝 5 민아의 대화 태도

엄마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 않고 엄마의 손을 뿌리치며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함.



엄마를 배려하지 못한 행동으로 원만한 대화를 방해함.

5 엄마와 대화할 때 원만한 대화를 방해하는 민아의 행동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상대방의 이야기에 대해 지나친 동정이나 위로의 말을 하였다.
- ② 상대방의 고민에 공감해 주지 않고 문제점을 분석하려고만 하였다.
- ③ 상대방이 잘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자신이 잘한 점만 말하였다.
- ④ 고민을 털어놓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충고하였다.
- ⑤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손을 뿌리치며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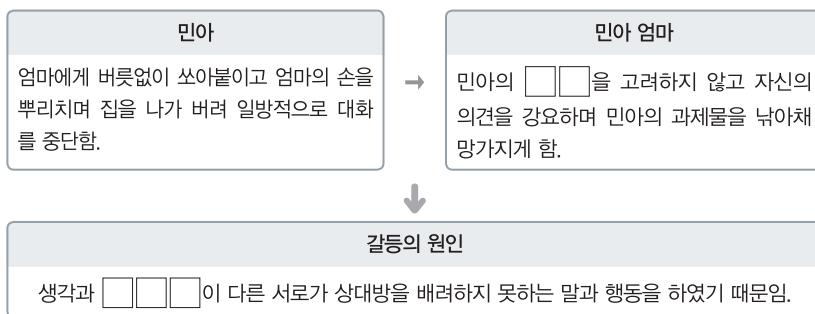
해닝 6 민아 엄마의 심리

- 민아가 화를 내는 이유를 몰라 당황함.
- 저녁 무렵 혼자 집을 나간 민아가 걱정됨.

6 이 장면에서 추측할 수 있는 민아 엄마의 심리로 적절한 것은? (정답 2개)

- ① 대견하다.
- ② 걱정된다.
- ③ 기대된다.
- ④ 당황스럽다.
- ⑤ 감동적이다.

핵심 콕콕 민아와 민아 엄마가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함.





아, 굳이 너 때문에 있는 거 아니야. 엄마랑 싸워서 집에 가기 싫어서 있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근데 무슨 일 있어? 너답지 않게 표정은 안 좋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너도 엄마랑 싸워?



응, 당연하지. 왜?

왠지 상상이 안 가서.....

그래, 우리 엄마가 인상 하나는 좋지. 그건 인정해!



네가 우리 엄마의 실체를 몰라서 그래.

나한테는 얼마나 뉘달하는데. 맨날 남이랑 비교만 하고.....



해닝 7 다은이의 대화 태도와 그에 따른 효과 ①

대화 태도
• 온화한 표정으로 민아의 옆자리에 앉아 마주 보며 대화함.
• 민아의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이를 고려하여 말함.
• 대화 도중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임.



효과
• 민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대화를 이어 나갈 수 있게 함.
• 민아가 진솔하게 대화할 수 있게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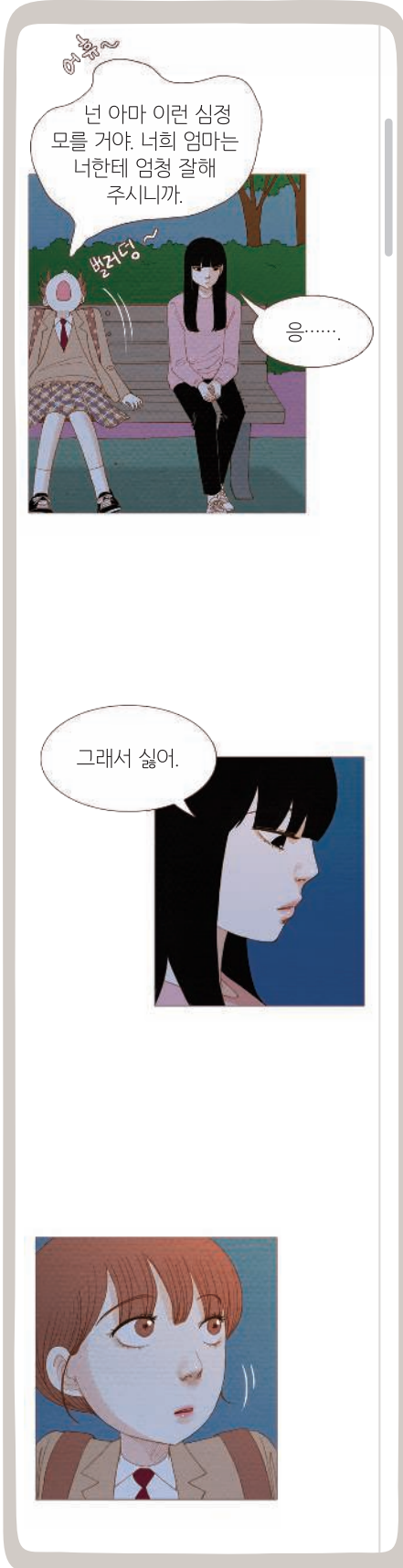
교과서 날개 다은이가 민아에게 먼저 말을 거는 까닭은 무엇일까?

7 다은이가 민아에게 먼저 말을 거는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싶어서
- ② 민아의 모습이 평소와 달라 보여 걱정돼서
- ③ 민아에게 평소 섭섭했던 것을 말하고 싶어서
- ④ 민아에게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사과하고 싶어서
- ⑤ 엄마와 싸운 것이 속상하여 민아에게 위로를 받고 싶어서

8 이 장면에 드러난 다은이의 말하기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에게 먼저 말을 걸어 준다.
- ② 옆자리에 앉아 마주 보며 대화한다.
- ③ 상대방의 표정과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핀다.
- ④ 상대방의 기분이나 상황을 파악하며 말한다.
- ⑤ 상대방이 문제점을 고칠 수 있도록 강하게 조언한다.



행낭 8 민아와 다은이의 입장

다은	엄마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닦달한다고 생각함.
민아	엄마가 너무 잘해 주는 것이 싫음.

9 다은이와 민아의 대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민아는 다은이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 ② 민아는 자신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다은이에게 서운해하고 있다.
- ③ 다은이는 자신의 입장에서 민아가 처한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 ④ 다은이는 민아의 말을 자신이 이해한대로 다시 반복하며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 ⑤ 민아와 다은이는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만 하며 갈등하고 있다.

행낭 9 다은 엄마의 대화 방법 ①

“알지. 민아 유산할 뻔해서 고생 많이 했잖아, 민아 엄마.”



관심 민아 엄마의 말에 맞장구
표현하기 를 치며 관심을 표현함.

10 ①에서 알 수 있는 다은 엄마의 대화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며 관심을 표현한다.
- ② 질문을 통해 상대방이 고민을 털어놓도록 하고 있다.
- ③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함으로써 상대방을 위로하고 있다.
- ④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 만한 현실적인 조언을 제시하고 있다.
- ⑤ 상대방이 가진 문제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임을 강조하여 마음을 편안하게 해 주고 있다.



행낭 10 엄마에 대한 민아의 생각

엄마가 잘해 주는 것을 고맷게 생각함.

↓

가끔은 엄마의 지나친 관심과 사랑이 부담스러움.

교과서 날개 민아가 말을 끝맺지 못한 까닭은 무엇일까?

11 민아가 자신의 말을 끝맺지 못한 이유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 2개)

- ① 마음이 혼란스러워서
- ② 감정이 북받쳐 올라서
- ③ 다은이가 믿어 주지 않을까 봐 걱정돼서
- ④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말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 ⑤ 자신의 속마음을 다은이에게 전부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서

행낭 11 다은이의 대화 태도와 그에 따른 효과 ②

대화 태도

민아의 고민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함.

효과

- 민아의 경험과 유사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여 공감함을 이끌어 냄.
- 민아의 상황과 처지를 충분히 이해한 후 건넨 조언으로 민아의 마음을 움직이게 함.

12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다은이의 대화 태도로 적절한 것은?

- ① 민아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다.
- ② 별 반응 없이 민아의 말을 듣기만 하고 있다.
- ③ 민아의 문제를 하나하나 분석하며 조언하고 있다.
- ④ 상대방의 말에 맞장구를 치며 편을 들어 주고 있다.
- ⑤ 자신의 경험을 말하며 상대방이 깨달음을 얻도록 도와주고 있다.



13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다른이의 태도로 적절한 것은?

- ① 상대방에게 명령하고 지시한다.
- ② 상대방의 고민을 직접 해결해 준다.
- ③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④ 상대방이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일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한다.
- ⑤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

해상 12 민아 엄마의 상황

민아의 방에서 좀 전에 있었던 다른 엄마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과거를 회상함.

회상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상황

- 민아를 유산할 뻔해서 고생했었음.
- 민아가 미숙아로 태어난 데다 잔병치레를 많이 해서 걱정이 많았음.

14 이 장면에서 알 수 있는 사실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아 엄마는 다른 엄마와의 대화를 회상하고 있다.
- ② 민아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에게 대든 적이 없었다.
- ③ 민아의 엄마는 과거에 민아를 유산할 뻔해서 고생하였다.
- ④ 다른 엄마는 민아 엄마가 민아로 인해 고생했던 과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
- ⑤ 민아 엄마는 민아가 어렸을 때 몸이 약해 병을 자주 앓아서 걱정이 많이 하였다.

근데 민아가 똑똑하게 잘 자라니까 그게 너무 기특해서
 뭐든 좋은 거에 최고로만 해 주고 싶었는데.....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줄은 몰랐어.

민아 엄마는 민아를 사랑해서 뭐든 다 해 주려는 건데
 그걸 몰라줘서 섭섭했겠네. 사람 마음이란 게 참 변덕스러운 것 같아.

아기 때는 건강하게만 키웠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욕심을 내고.....

그러지 말아야지 싶다가도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돼. 사회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 이제 저희도 머리 컸다고 뛰쳐나가려는 걸 무슨 수로 막겠어.

알면서도 저 주고 부모니까 아이들을 믿어 줘야겠지.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뜻을 따르지만 자라서 는 제 뜻대로 행동하려 함 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엄마?

아, 민아 다녀왔니?
 그럼..... 쉬어.....

행닝 13 다른 엄마의 대화 방법 ②

재진술 하기	“민아 엄마는 민아를 사랑해서 ~ 그걸 몰라줘서 섭섭했겠네.” → 민아 엄마의 말을 자신의 말로 다시 진술함.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	“사람 마음이라는 게 ~ 사회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 민아 엄마와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

교과서 날개 다른 엄마의 말을 들은 민아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

15 다른 엄마의 말을 들은 민아 엄마의 마음을 추측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아의 행동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할 것이다.
- ②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어 위로가 되었을 것이다.
- ③ 부모니까 민아에게 먼저 손을 내밀기로 하였을 것이다.
- ④ 만만하지 않은 사회에 나갈 민아를 더욱 보호하려고 애쓸 것이다.
- ⑤ 자신의 입장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이다.

16 이 장면에서 드러나는 다른 엄마의 대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정답 2개)

- ① 민아 엄마의 생각과 감정을 재진술하고 있다.
- ② 민아 엄마의 말에 나타난 논리적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 ③ 자신의 경험을 말하여 민아 엄마와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민아 엄마에게 자신의 해결책을 그대로 따라해 볼 것을 강요하고 있다.
- ⑤ 민아 엄마보다 훨씬 힘든 상황에 있는 다른 사람의 예를 들어 민아 엄마를 위로하고 있다.



행닝 14 두 인물의 갈등 해소

민아 엄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아가 자신의 지나친 관심을 담당해한다는 것을 알고 사과함. • 공감대를 마련해 민아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감.
민아
엄마에게 마음을 열고 인형 만드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하며 다시 손을 내밈.

교과서 날개 민아 엄마가 민아에게 어릴 때 만들기를 좋아했다고 말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17 민아 엄마가 민아에게 어릴 때 만들기를 좋아했다고 말한 까닭을 추측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아와 공감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 ② 민아와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 ③ 민아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기 위해서
- ④ 자신의 만들기 솜씨가 좋다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 ⑤ 민아와 공통점을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다시 가까워지기 위해서

18 민아와 엄마와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었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아가 엄마의 뜻을 무조건 따르기로 해서
- ②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 ③ 상대방에게 서운한 점을 이야기하지 않기로 하여서
- ④ 민아 엄마가 민아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로 하여서
- ⑤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바라거나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여서

핵심 속삭 민아와 민아 엄마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함.


갈등의 해소	
민아 다른이와의 대화를 통해 엄마와의 갈등 상황을 되돌아봄.	민아 엄마 다른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민아와의 갈등 상황을 되돌아봄.
↓	↓
엄마에게 먼저 다가와 인형 만드는 것을 도와 달라고 부탁함.	민아에게 먼저 사과하고 민아를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해주기로 함.

1 장면을 중심으로 정리하는 웹툰의 주요 내용

왜 이런 쓸데없는 데다 시간을.....




그걸 왜 엄마가 정하는데?




민아와 엄마가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로 함.

엄마가 나한테 잘해 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가끔은 너무.....



민아가 다은이에게 을 털어놓고 다은이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민아에게 조언함.

혹시 엄마한테 말해 봤어?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줄은 몰랐어.



민아 엄마의 속마음을 듣고 다은 엄마가 함.

민아 엄마는 민아를 사랑해서 뭐든 다 해 주려는 건데 그걸 몰라줘서 섭섭했겠네.



엄마, 다음부터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이야기할게.



민아와 엄마의 이 해소되고 서로를 하게 됨.

그래, 너도 다 컸는데 앞으로는 널 더 존중해 줄게.....



! 학습 활동 응용

01 민아와 엄마가 갈등하는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정 환경이 달라서
- ② 생각과 가치관이 달라서
- ③ 살아가는 문화가 달라서
- ④ 생활 습관이 서로 달라서
- ⑤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가 달라서

02 민아의 입장에서 다은이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것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어른과 청소년의 차이를 알게 되었다.
- ② 다은이와의 좋지 않았던 관계가 회복되었다.
- ③ 다은이에게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게 되었다.
- ④ 어른들과 대화할 때 지켜야 할 예의에 대해 알게 되었다.
- ⑤ 엄마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얻었다.

03 민아 엄마가 다은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얻은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감정적으로 위로를 받았다.
- ② 민아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다.
- ③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었다.
- ④ 민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 ⑤ 민아를 대하는 마음과 방법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다.

04 다은이와 다은 엄마의 대화 태도를 바탕으로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상대방과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하고 상대방의 ()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

2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는 대화의 필요성

(1)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는 다은이의 대화 태도 정리하기

다은이의 말과 행동	다은이의 대화 태도
<p>너답지 않게 표정은 안 좋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p> 	<p>민아의 표정과 상태를 주의 깊게 살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아의 감정에 □□하며 민아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함. • 민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경청하면서) 진지한 자세로 대화함.
<p>난 서운한 게 있으면 일단 엄마한테 다 말해.</p> 	<p>민아의 고민을 이해하고 자신의 □□을 공유하며 조언을 건넴.</p>

(2) 다은이와의 대화 후 민아의 마음 추측하기

→ 다은이와 대화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엄마와 이렇게 □□한 적이 없어서 몹시 혼란스럽고, 화도 나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도 되었는데, 다은이와 대화하고 나니 자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는 대화가 필요한 까닭 알기

→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만을 말할 경우 상대방이 상처를 받거나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려고 할 수 있다.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해 준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05 <보기>에 드러나는 다은이의 대화 태도로 적절한 것은?

— 보기 —

“너답지 않게 표정은 안 좋고, 어깨도 축 처져 있고…….”

- 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조언을 건네고 있다.
- ② 상대의 생각과 감정을 재진술하며 공감해 주고 있다.
- ③ 상대의 표정과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며 대화하고 있다.
- ④ 상대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진지한 자세로 대화하고 있다.
- ⑤ 상대의 말에 적절한 반응을 보이며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

06 다음에 드러나는 다은이의 말하기 방식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시오.

“난 서운한 게 있으면 일단 엄마한테 다 말해.”

07 다은이와 이야기한 후 민아의 마음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다은이와 대화한 것을 후회했을 것이다.
- ② 다은이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것이다.
- ③ 다은이가 자신의 입장을 이해해 주지 않아 서운했을 것이다.
- ④ 다은이의 고민을 제대로 들어 주지 않았던 것이 미안했을 것이다.
- ⑤ 다은이가 이야기의 주제를 잘 파악하지 못해서 답답했을 것이다.


08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상대방의 상황과 ()를 ()하고 대화하면 상대방이 ()을 열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


3 상대방의 말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


(1) 다른 엄마가 민아 엄마의 말에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애가 얼마나 무섭게 대들던지, 세상에…….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다른 엄마도 알지?

 알지. 민아 유산할 뻔해서 고생 많이 했잖아, 민아 엄마. (중략)

→ 상대방의 말에 표현하기

 민아가 똑똑하게 잘 자라니까 그게 너무 기특해서……. 뭐든 좋은 거에 최고로만 해 주고 싶었는데……. 그걸 스트레스라고 생각할 줄은 몰랐어.

 민아 엄마는 민아를 사랑해서 뭐든 다 해 주려는 건데 그걸 몰라줘서 섭섭했겠네.

→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파악하고 자신의 말로 하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변덕스러운 거 같아. 아기 때는 건강하게만 키웠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욕심을 내고……. 그러지 말아야지 싶다가도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돼. 사회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공유하기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이 있잖아. 이제 저희도 머리 컸다고 뛰쳐나가려는 걸 무슨 수로 막겠어. 알면서도 저 주고 부모니까 아이들을 믿어 줘야겠지.

(2) 다른이의 말에 다양한 방법으로 공감하며 듣고 반응하기

다른이는 민아와 소설 예고편 발표회를 준비하고 있다. 모듬원 가운데 장난꾸러기인 줄로만 알았던 찬영이가 소설 속 인물을 멋지게 연기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이는 깊은 생각에 빠진다.

민아: 다른아, 아까부터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

다른: 아아, 그냥……. 아까 찬영이를 보고 좀 놀랐거든.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게 있는데 난 뭔가 싫어서. 공부도 운동도 노래도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말이야.

민아:

● 공감하며 대화하기 방법을 활용하여 빈칸에 들어갈 민아의 대답을 쓰시오.

→ 관심 표현하기: 음,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 재진술하기: 친구들은 잘하는 게 있는데 너만 특기가 없는 것같이 느껴져서 속상하구나.

→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 나도 내 특기나 적성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공부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 비슷한 을 한 적이 있어.

09 다음 상황에서 다른 엄마가 활용한 대화 방법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로 쓰시오.

— 보기 —

- ㉠ 관심 표현하기
- ㉡ 재진술하기
- ㉢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

(1) 알지. 민아 유산할 뻔해서 고생 많이 했잖아, 민아 엄마. ()

(2) 민아 엄마는 민아를 사랑해서 뭐든 다 해 주려는 건데 그걸 몰라줘서 섭섭했겠네. ()

10 <보기>에 드러나는 공감적 대화 방법을 한 문장으로 서술하십시오.

— 보기 —

다른 엄마: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변덕스러운 거 같아. 아기 때는 건강하게만 키웠으면 더 바랄 게 없겠다 싶었는데 어느새 나도 모르게 욕심을 내고……. 그러지 말아야지 싶다가도 그게 참 마음대로 안 돼. 사회가 만만하지 않으니까.

11 <보기>와 같이 말하는 다른이에게 ‘재진술하기’ 방식으로 공감하며 대화한 사람은?

— 보기 —

다른: 아아, 그냥……. 아까 찬영이를 보고 좀 놀랐거든.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는 게 있는데 난 뭔가 싫어서. 공부도 운동도 노래도 딱히 잘하는 것도 없고 말이야.

- ① 정규: 너만 그런 건 아니야.
- ② 여은: 음,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 ③ 희철: 네가 딱히 잘하는 게 없긴 해.
- ④ 성주: 다른 친구들과 달리 너만 특기가 없는 것 같아 속상하구나.
- ⑤ 혜원: 나도 내 특기나 적성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만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불안해.

[활동 더하기] 웹툰의 다른 상황으로 공감하며 듣고 반응하는 대화 만들기

전학생인 은호는 어린 시절부터 국가 대표 선수를 목표로 해 오던 축구를 그만둔 일로 아빠와 사이가 멀어졌다. 우연히 상황을 알게 된 찬영이는 은호와 대화를 나눈다.

찬영: 너 아까 보니까 축구부였나 본데……, 다리 다쳐서 그만둔 거야?

은호: 아니, 그만두려고 다리 다친 거야.

찬영: 뭐?

은호: 그렇게라도 안 하면 아빠가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거든.

찬영: 그럼 아빠 때문에 억지로 한 거야?

은호: 처음엔 아니었어.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 보니까 급이 다르더라고, 아예……. 아빠는 내가 실력이 안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으셨어. 노력을 덜해서 그런 거라면서……. 아빠는 날 국가 대표로 만드는 게 꿈이셨거든. 내가 그만둔다고 했을 때 엄청 화나셨을 거야, 아마.

찬영:

▶ 찬영이의 대답

- 관심 표현하기: 그렇구나. / 그런 일이 있었구나.
- 재진술하기: 넌 더 이상 를 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아빠 때문에 많이 힘들었겠다.
-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 나도 좋아서 시작했던 일인데 할수록 어려워져서 중간에 포기한 일로 부모님과 한 적이 있어.

[더 알아보기]

• <꿈꾸는 소녀, 소년>의 전체 줄거리

발단	중학교 1학년인 다은, 민아, 찬영, 은호는 같은 조가 되어 국어 시간에 소설 예고편을 함께 만들게 됨.
전개	다은, 민아, 찬영, 은호는 서로 화합하지 못해 소설 예고편 만들기 과제를 원활히 수행해 나가지 못함.
위기	조별 과제물을 만들던 민아는 공부만 신경 쓰면 된다고 말하는 엄마와 갈등하고, 은호는 축구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 자신의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아빠와 갈등을 겪게 됨. → [교과서 수록 부분]
절정	민아와 다은, 은호와 찬영은 대화를 통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게 되고, 가족들과도 화해함. → [교과서 수록 부분]
결말	네 명의 친구들은 조별 과제를 준비하며 더 가까워지고 각자의 진로에 관해 고민하며 꿈을 계속 키워 나감.

12 '은호'의 상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호는 축구를 그만두고 싶어 한다.
- ② 은호는 아빠의 욕심 때문에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 ③ 은호는 축구를 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다리를 다쳤다.
- ④ 은호 아빠의 꿈은 은호가 축구 국가 대표 선수가 되는 것이었다.
- ⑤ 은호 아빠는 은호의 축구 실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13 공감하며 대화하기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원만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 ② 대화 상대방과 신뢰감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
- ③ 대화 참여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 ④ 관심을 표현하거나, 재진술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 ⑤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대화이다.

문제 해결과 적용

1 대화 속 문제점 파악하기

가 경훈이와 형진의 대화

방과 후 청소 시간, 휴대 전화로 게임 중인 형진에게 경훈이가 말을 건다.

경훈 (밝고 기분 좋은 얼굴로) 형진아!

형진 (고개도 들지 않고 게임에만 열중한다.)

경훈 김형진! 내 말 듣고 있어?

형진 (게임을 계속하면서) 어, 어, 왜?

경훈 (상장을 보여 주며) 이것 봐. 지난번에 교내 발표 대회가 있었잖아. 거기서 상을 받았어!

형진 (힐끔 보면서) 아, 그래……. 난 또 뭐라고…….

경훈 무슨 반응이 그래? 나한테 해 줄 말 없어?

형진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됐지? 상 받았으니 나한테 한턱내.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먼저 간다! (가 버린다.)

경훈 (혼잣말로) 뭐야, 기분 나쁘게……. 상 탄 기념으로 같이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나 송이와 유정의 대화

점심시간, 유정에게 송이가 말을 건다.

송이 유정아, 나…… 요즘 고민이 있어.

유정 그래, 고민을 말해 봐.

송이 우리 반 몇몇 친구들이 날 불편해하는 것 같아. 은근히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유정 난 잘 모르겠는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여간 너 예민한 건 알아줘야 돼.

송이 (얼굴 찌푸리며) 아니야, 지난번에 모둠 발표에서 실수한 적이 있어. 내가 발표 원고를 안 가져와서 모둠 발표를 할 때 다들 애먹었거든. 혹시 그것 때문에 날 피하는 걸까?

유정 그런가 보네. 넌 늘 털렁거리는 게 문제야.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면 미리 잘 챙겨야지.

송이 (화내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어휴, 됐어.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냐. (가 버린다.)

유정 기껏 열심히 들어 줬더니, 왜 저러는 거야?

14 (가)의 대화 상황을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형진은 경훈이가 잘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
- ② 형진은 경훈이의 말보다 게임에 더 열중하고 있다.
- ③ 형진은 상을 받은 경훈이를 칭찬하며 축하해 주고 있다.
- ④ 경훈이는 기분 좋은 상태에서 형진과 대화를 시작하였다.
- ⑤ 경훈이는 자신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는 형진이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

15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송이는 유정의 충고에 기분이 상해 가 버렸다.
- ② 유정은 송이가 기분이 상한 이유를 알지 못한다.
- ③ 송이는 반 친구들이 자신을 불편해하는 것 같아 고민이다.
- ④ 유정은 예민한 송이 때문에 친구들이 불편해하는 것을 더 걱정한다.
- ⑤ 송이는 친구들이 자신을 피하는 이유가 자신이 모둠 발표에서 실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6 형진과 유정의 대화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문제점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상대방에게 관심이 없다.
- ② 상대방에게 충고하려고 한다.
- ③ 상대방과 공감하며 대화하지 않는다.
- ④ 상대방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려고 한다.
- ⑤ 상대방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려고 한다.

(1) 경훈이와 송이의 상황 정리하기

가 경훈이의 상황

→ 교내 발표 대회에서 을 타서 형진이에게 칭찬받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 상을 탄 사실을 형진이에게 이야기함.

나 송이의 상황

→ 친구들이 자신을 하고 피하는 것 같아 고민이며, 유정에게 자신의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받고 싶어 털어놓음.

(2) **가**와 **나**에서 경훈이와 송이가 친구에게 기대했던 반응과 친구와 대화를 나눈 후의 기분 추측하기

	친구에게 기대했던 반응	대화를 나눈 후의 기분
가 경훈	형진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을 기대함.	기분이 나빠짐.
나 송이	유정이가 자신의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해 주기를 바람.	기분이 상함.

(3) **가**와 **나**에서 상대방에게 공감하지 못한 말을 찾고, 그 말의 문제점 파악하기

	공감하지 못한 말	그 말의 문제점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게임을 계속하면서) 어, 어, 왜? • 아, 그래……. 난 또 뭐라고……. •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됐지? 상 받았으니 나한테 한턱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말에 <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하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다. • 상대방이 잘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인 말하기를 한다.
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 잘 모르겠는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여간 너 예민한 건 알아 줘야 돼. • 년 늘 덜렁거리는 게 문제야.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면 미리 잘 챙겨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방의 처지나 <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말한다. • 상대방에게 공감해 주지 않고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input type="checkbox"/><input type="checkbox"/>하려고 한다.

17 (가)의 상황에 맞도록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시오.

경훈이는 형진이에게 () 받고 () 마음을 나누고 싶어 상을 탄 사실을 형진이에게 이야기하였다.

18 (가)에 나타난 형진의 말하기의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의 말에 집중하지 않고 건성으로 듣는다.
- ② 상대방이 이야기하는 중에도 자신의 일에만 몰두한다.
- ③ 상대방의 감정이나 말하는 의도를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
- ④ 상대방의 말을 도중에 끊고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한다.
- ⑤ 상대방이 잘한 것을 진심으로 인정해 주지 않고 비아냥거린다.

19 (나)에서 송이의 기분이 상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유정이가 송이를 불편해하며 은근히 피했기 때문에
- ② 유정이가 송이의 고민을 들으면서 탄짓을 하였기 때문에
- ③ 유정이가 송이의 이야기를 들어 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 ④ 유정이가 송이의 고민을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 ⑤ 유정이가 송이에게 공감해 주지 않고 충고하려고만 하였기 때문에



▶ 공감하며 대화하기

★ 바른답·알찬풀이 8쪽

수록 글 **한눈에** 쏙!

○ 웹툰의 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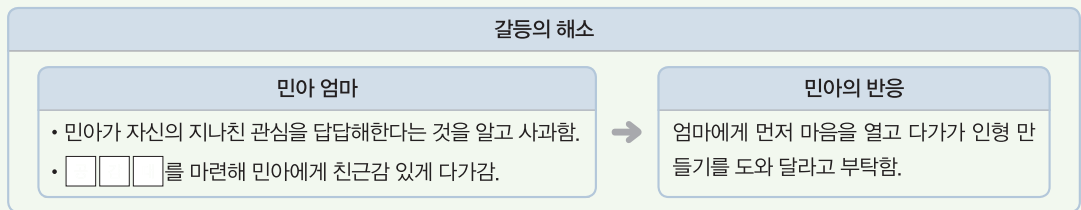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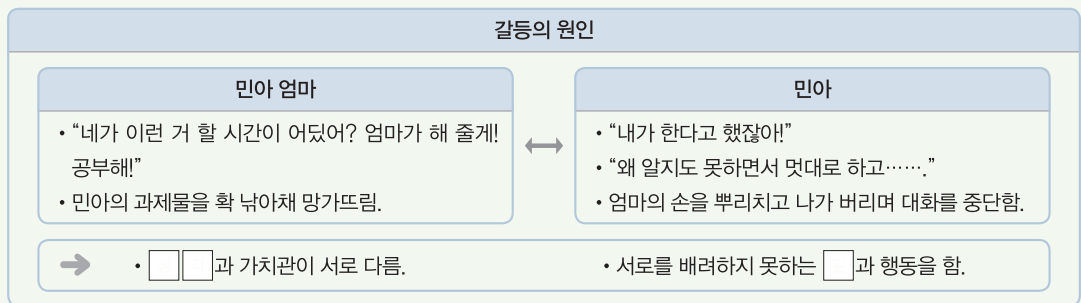
갈래	웹툰(인터넷 만화)	제재	엄마와 딸의 가치관 대립으로 인한 갈등
주제	서로의 처지에 대한 이해와 공감하는 대화의 필요성		
특징	① 엄마와 딸이 서로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을 해결하는 과정이 잘 그려짐. ② 민아와 다은, 민아 엄마와 다은 엄마의 대화에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하며 듣고 적절하게 반응하는 방법이 잘 드러남.		

○ 웹툰의 주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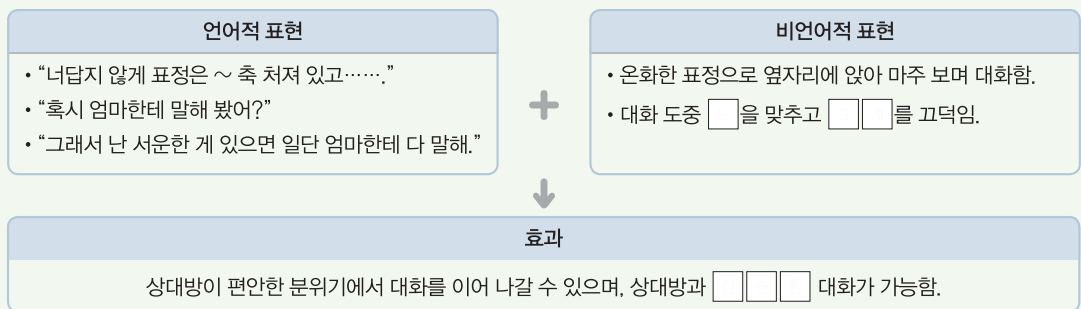
주요 장면 1	주요 장면 2	주요 장면 3	주요 장면 4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와 민아 엄마가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로 갈등함.	민아가 다은이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다은이가 민아에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함.	민아 엄마의 속마음을 듣고 다은 엄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함.	민아와 민아 엄마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함.

학습 내용 **핵심** 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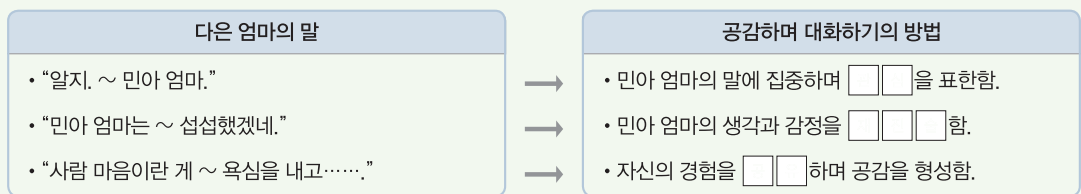
○ 민아 엄마와 민아의 갈등 원인과 해소



○ 다은이의 대화 태도와 그에 따른 효과



○ 다은 엄마가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





[01~04] 다음 만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 학습 활동 응용

01 (가)에서 민아와 엄마가 갈등하게 된 원인으로 적절한 것은? (정답 2개)

- ① 서로에 대한 무관심
- ② 엄마와 민아의 가치관 차이
- ③ 학교생활에 대한 민아의 불만
- ④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는 말하기 방식
- ⑤ 민아에 대한 엄마의 지나치게 많은 요구

▶ 서술형

02 (가)에서 엄마의 말하기 방식에 드러난 문제점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 '이해'와 '강요'라는 단어를 포함할 것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쓸 것

▶ 학습 활동 응용

03 (나)에 나타난 다은이의 대화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아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할 말만 한다.
- ② 민아의 생각을 파악하여 자신의 말로 재진술한다.
- ③ 민아의 표정과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관심을 가져 준다.
- ④ 민아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준다.
- 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언을 해 준다.

04 (나)에서 알 수 있는 공감하며 말하기가 필요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 ① 상대방에게 자신의 생각을 설득할 수 있다.
- ② 서로 비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③ 서로의 문제를 바르게 해결해 줄 수 있다.
- ④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다.
- ⑤ 상대의 잘못된 점을 직설적으로 충고할 수 있다.

1
단원



[05~07] 다음 만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나



학습 활동 응용

05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 ㉠~㉢에 사용된 대화 방법이 무엇인지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 보기

- ㉠ 재진술하기
- ㉡ 관심 표현하기
- ㉢ 자신의 경험 공유하기

• ㉠: _____ • ㉡: _____ • ㉢: _____

06 (나)에 나타난 민아와 민아 엄마의 대화 방법을 설명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 ① 민아는 발표회 준비를 도와 달라며 엄마에게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었다.
- ② 민아는 엄마에게 다음부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하겠다고 말하며 먼저 대화를 시작하였다.
- ③ 민아의 엄마는 앞으로 민아를 더 존중하겠다고 말하며 민아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④ 민아의 엄마는 만드는 것을 좋아했었다는 공감대를 마련해 민아에게 친근감 있게 다가가려고 하였다.
- ⑤ 민아의 엄마는 민아가 스스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보겠다고 말하며 민아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였다.

07 (가)와 (나)를 통해 알 수 있는 공감하며 대화하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 ②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려고 노력한다.
- ③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지 않는다.
- ④ 상대방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한다.
- ⑤ 상대방의 말에 관심을 표현하고 적절히 반응하면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다.

[08~10]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방과 후 청소 시간, 휴대 전화로 게임 중인 형진에게 경훈이가 말을 건다.

경훈: (밝고 기분 좋은 얼굴로) 형진아!

형진: (고개도 들지 않고 게임에만 열중한다.)

경훈: 김형진! 내 말 듣고 있어?

형진: (게임을 계속하면서) 어, 어, 왜?

경훈: (상징을 보여 주며) 이것 봐. 지난번에 교내 발표 대회가 있었잖아. 거기서 상을 받았어!

형진: (힐끔 보면서) 아, 그래……. 난 또 뭐라고…….

경훈: 무슨 반응이 그래? 나한테 해 줄 말 없어?

형진: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됐지? 상 받았으니 나한테 한턱내. 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나 먼저 간다! (가 버린다.)

경훈: (혼잣말로) 뭐야, 기분 나쁘게……. 상 탄 기념으로 같이 떡볶이나 먹으러 가자고 말하려고 했는데…….

나 점심시간, 유정에게 송이가 말을 건다.

송이: 유정아, 나…… 요즘 고민이 있어.

유정: 그래, 고민을 말해 봐.

송이: 우리 반 몇몇 친구들이 날 불편해하는 것 같아. 은근히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유정: 난 잘 모르겠는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여간 너 예민한 건 알아줘야 돼.

송이: (얼굴 찌푸리며) 아니야, 지난번에 모둠 발표에서 실수한 적이 있어. 내가 발표 원고를 안 가져와서 모둠 발표를 할 때 다들 애먹었거든. 혹시 그것 때문에 날 피하는 걸까?

유정: 그런가 보네. 넌 늘 덜렁거리는 게 문제야.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면 미리 잘 챙겨야지.

송이: (화내며)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내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어휴, 됐어.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냐. (가 버린다.)

유정: 기껏 열심히 들어 줬더니, 왜 저러는 거야?

▶ 학습 활동 응용

08 (가)~(나)에서 상대방에게 공감하지 못한 말이 아닌 것은?

- ① 아, 그래……. 난 또 뭐라고…….
- ② 아이고, 그래! 너 잘났다! 됐지?
- ③ 그래, 고민을 말해 봐.
- ④ 난 잘 모르겠는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여간 너 예민한 건 알아줘야 돼.
- ⑤ 넌 늘 덜렁거리는 게 문제야. 남한테 피해 주지 않으려면 미리 잘 챙겨야지.

▶ 학습 활동 응용

09 (가)에서 경훈이의 기분이 나빠진 까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형진이가 경훈이의 말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② 형진이가 게임을 하며 건성으로 대답하였기 때문이다.
- ③ 형진이가 경훈이의 잘한 점을 인정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④ 형진이가 경훈이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축하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 ⑤ 형진이가 경훈이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의견만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서술형

10 (나)에서 유정이가 대화를 할 때 가져야 할 태도를 <조건>에 맞게 쓰시오.

조건

- 유정이가 가진 대화 태도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쓸 것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쓸 것



[01-05]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썩던 꺾을 아무 데나 뒹, 뺨지 못하고
종이에 싸서 쓰레기통으로 달려가는

㉠너는 참 바보다.

개구멍으로 속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비잉 돌아 교문으로 다니는

너는 참 바보다.

얼굴에 검댕 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한테
쓸데없이 꾸벅, 인사하는

너는 참 바보다.

호랑이 선생님이 전근 가신다고

계집애들도 흘리지 않는 눈물을 찢끔거리는

너는 참 바보다.

그까짓 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민들레 앞에 쪼그리고 앉아 한참 바라보는

너는 참 바보다.

내가 아무리 거짓으로 허풍을 떨어도

눈을 동그랗게 뜨고 머리를 끄덕여 주는

너는 참 바보다.

바보라고 불러도 화내지 않고

씨익 웃어 버리고 마는 너는

정말 정말 바보다.

—그럼, 난 뭐냐?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나는?

01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공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
- ② 대상에 대한 관찰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였다.
- ③ 역설 표현을 통해 부정적인 상황을 강조하였다.
- ④ 계절적 배경을 통해 암울한 분위기를 형성하였다.
- ⑤ 대상을 의인화하여 대상이 지닌 속성을 나열하였다.

02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너'의 행동을 닮고 싶어 한다.
- ② '너'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라본다.
- ③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너'를 좋아한다.
- ④ '너'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본다.
- ⑤ '너'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 씩씩이에 감탄한다.

03 이 시에 드러난 '너'의 태도가 아닌 것은?

- ① 정이 많고 마음이 따뜻하다.
- ② 착하고 밝은 성격을 지녔다.
- ③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비판적이다.
- ④ 생활 태도가 바르고 규칙을 잘 지킨다.
- ⑤ 상대방에게 공감을 잘하고 마음이 너그럽다.

실력 UP **고난도**

04 ㉠과 같은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우회적인 표현으로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준다.
- ② 대상에 대한 진짜 속마음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 ③ 속마음과 겉으로 드러나는 표현이 서로 정반대이다.
- ④ 표현 자체가 갖는 의미는 진짜가 아니며, 반대되는 의미로 이해해야 한다.
- ⑤ 대상을 비틀거나 비꼬아서 사회나 개인의 부정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

서술형 실력 UP **고난도**

05 이 시에서 드러나는 운율의 효과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조건 /

- 운율을 형성하는 시어나 시구를 구체적인 예로 제시할 것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쓸 것

[06~0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넛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가슴이 끔찍하
 여 풀떡 뛰어 내닫다가 두엄 아래에 자빠졌구나
 모쳐라 날랜 나이니 망정이지 어혈 질 뻔했구나

나 선생님: 이 시조의 시대적 배경을 알고 보면 이 시조
 가 달리 보일 수 있어요. 이 시조가 지어진 조선 후
 기에는 백성들이 탐관오리들에게 큰 고통을 받았지
 요. 탐관오리들은 자신보다 더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
 는 아첨하거나 뇌물을 바치고, 힘없는 백성들은 못살
 게 굴었어요. 그러한 고통을 받은 백성들이 이 시조를
 창작했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시조에 등장하는
 동물들은 특정한 인물들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어요.



06 (가)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로 알맞은 것은?

- ① ‘두꺼비’라는 시어를 반복하였다.
- ② ‘풀떡 뛰어’라는 시구를 반복하였다.
- ③ 3~5자의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였다.
- ④ ‘모쳐라’라는 시어를 같은 위치에서 반복하였다.
- ⑤ ‘~를 물고 ~ 앉아’라는 형식의 문장을 반복하였다.

실력 UP 고난도

07 (나)를 활용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엄지: (가)는 조선 후기에 고통을 받았던 백성들이 지은 것이겠구나.
- ② 효진: (가)를 창작한 사람은 힘없는 백성을 ‘파리’에 빗대어 표현했어.
- ③ 동호: ‘백송골’은 가난한 백성을 위해 탐관오리를 벌주는 정의로운 권력자들을 의미해.
- ④ 진성: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 끔찍 못하는 ‘두꺼비’의 모습은 비굴한 탐관오리들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한 거야.
- ⑤ 현주: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서 거드름을 피우는 모습에는 당시 백성을 못살게 굴던 탐관오리들을 비꼬려는 의도가 담겨 있어.

08 반어 표현을 활용하여 (다)의 광고 문구를 새로 만든다고 할 때,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경찰서에 장난 전화를 하지 맙시다.
- ② 허위 신고 전화는 경찰의 발목을 붙잡습니다.
- ③ 허위 신고 덕분에 경찰은 번개같이 출동합니다.
- ④ 지나친 전화 사용은 사회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 ⑤ 허위 신고를 하는 순간 누군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09 (가)와 (다)에서 공통적으로 쓰인 표현 방법의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제 상황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어 상황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
- ② 웃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대상의 부정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 ③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 감정을 완화시킬 수 있다.
- ④ 대상의 부정적 측면을 직설적으로 비난함으로써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강하게 드러낼 수 있다.
- 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의 상황을 제시함으로써 읽는 이에게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게 할 수 있다.



[10~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한국을 떠나 미국의 애리조나주 투손시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했을 때의 일이다. 인디언 천막 안에서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 있는 대화를 주고받으리라 기대했던 나는 아주 뜻밖의 일을 경험했다. 천막 안으로 들어가 그들과 마주 앉자마자, 나는 내 소개를 하기 시작했다. 나는 글을 쓰는 작가이며, 인디언 세계에 무척 관심이 많고, 잘 부탁한다는 말까지 잊지 않았다.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도 넌지시 내비쳤다.

나 그런데 **㉠** 그들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다만 허리를 꼴꼴이 세우고 묵묵히 앉아 있을 뿐이었다. 천막 안이 어슴푸레해서 그들의 시선이 나를 향하고 있는 건지 허공을 바라보고 있는 건지도 알 수 없었다.

천막마다 그런 식이었다. 아마도 그들이 나를 불청객으로 여기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축제에 참석한, 잘난 체하는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 타는 일로 여길 법도 했다. 결국,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못한 채 천막마다 구부리고 들어가느라 허리만 빼근했다.

다 훗날에야 나는 그것이 인디언 부족들의 전통인 것을 알았다. 누군가를 만나면 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한동안 침묵으로 상대방을 느끼는 것이다.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을 통한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한 것임을 그들은 깨닫고 있었다.

라 그 후 미국에서 돌아와 나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들 흉내를 내고는 했다. **㉡** 상대방의 존재를 느낀답시고 입을 다물고 오 분이고 십 분이고 앉아 있었다. 그 결과, 아주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미처 몰랐다.

10 이 글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담겨 있다.
- ② 글쓴이가 겪었던 가치 있는 경험이 드러난다.
- ③ 글쓴이의 독특한 문체나 표현 등이 사용되었다.
- ④ 글쓴이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꾸며 낸 이야기가 펼쳐진다.
- ⑤ 글쓴이가 일상생활에서 보고 느낀 모든 것이 소개가 된다.

11 이 글에서 글쓴이가 겪은 경험으로 알맞은 것은?

- ① 글쓴이는 인디언 축제를 열고 인디언들을 초대했다.
- ② 글쓴이는 인디언들과 처음 만났을 때 먼저 침묵했다.
- ③ 인디언들은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 타는 일로 여기고 글쓴이를 반가워하지 않았다.
- ④ 글쓴이는 어렸을 때 인디언들과 함께 살아서 인디언들의 철학과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인디언들과 대화를 나누기를 원했으나 인디언들은 글쓴이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12 ㉠의 이유로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에게 관심이 없어서
- ② 글쓴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 ③ 글쓴이를 불청객이라고 생각해서
- ④ 글쓴이가 어떤 존재인지 좀 더 잘 느끼기 위해서
- ⑤ 글쓴이가 자신들에게 어떤 해를 입힐까봐 두려워서

서술형 실력 UP 고난도

13 글쓴이가 ㉡과 같이 행동함으로써 깨달은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조건 /

- 글쓴이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포함할 것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쓸 것

[14~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어쨌거나 인디언들과 만남은 내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그들은 땅을 사랑하고, 벌레들이 날개 치는 소리를 사랑하고, 한겨울 들소의 코에서 나오는 텃없는 입김을 사랑했다. 그 세계에 이끌린 나머지, 나는 미국에 갈 때마다 자주 그들이 모여 사는 곳을 기웃거리게 되었다. 나 역시 머리를 땅고 인디언 팔찌를 하고 다녔다.

나 몇 번의 여행을 인디언들과 함께하면서 나는 그들에게서 두 개의 인디언식 이름을 얻었다. 그중의 하나가 '너무 많이 말해'였다. 내가 뭘 얼마나 떠들었기에 그런 식으로 나를 부르는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랬다가는 '너무 많이 따져'라는 이름을 또 얻게 될까 봐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렇다. 고백하지만, 나는 그들의 침묵에는 턱없이 모자랐고, 그들의 말에는 더없이 넘쳐났다. ㉠나는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가?

다 라코타족 인디언인 '서 있는 꿈'은 말한다.
"침묵은 라코타족에게 의미 깊은 것이었다. 라코타족은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을 진정한 예의로 알고 있었다. '말 이전에 침묵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슬픈 일이 닥쳤거나 누가 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을 때, 나의 부족은 먼저 침묵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어떤 불행 속에서도 침묵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다."

라 인디언들은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족마다 언어도 매우 다르다. 그래서 나는 인디언을 만나면 그들의 부족 언어를 묻곤 했다.
"당신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들은 이렇게 답하곤 했다.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14 (가)~(라)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아닌 것은?

- ① 인디언들은 자연을 소중하게 여긴다.
- ② 인디언들은 머리를 땅고 팔찌를 하고 다닌다.
- ③ 인디언들은 부족마다 서로 다른 언어를 가지고 있다.
- ④ 인디언식 이름은 그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짓는다.
- ⑤ 불행한 상황에 처한 사람과는 대화하지 않는 것을 전통으로 여기는 인디언 부족도 있다.

15 글쓴이가 ㉠과 같이 생각하게 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라코타족 인디언인 '서 있는 꿈'의 조언을 들었기 때문에
- ② 평소에도 사람들에게 말이 많다는 소리를 들어왔기 때문에
- ③ 인디언들이 자신에게 쓸데없는 말을 그만하라고 요구하였기 때문에
- ④ 자신은 인디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 ⑤ 인디언들이 자신에게 지어 준 이름을 듣고,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았기 때문에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의문형 문장으로 끝맺어 대상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강조할 수 있다.
- ② 같은 말의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여 대상의 속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 ③ 읽는 이에게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게 하여 웃음으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
- ④ 말하고자 하는 바와 반대로 표현하여 실제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 ⑤ 겉보기에 모순되는 생각이나 관념을 연결하여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서술형

17 ㉡에 담긴 뜻을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 조건 /

- '말'과 '침묵'을 비교하여 쓸 것
-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쓸 것



[18~20] 다음 만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실력 UP 고난도

18 (가)의 민아 엄마와 <보기>의 유정이가 공통적으로 가진 문제점으로 알맞은 것은?

- 보기 -

송이: 유정아, 나..... 요즘 고민이 있어.
 유정: 그래, 고민을 말해 봐.
 송이: 우리 반 몇몇 친구들이 날 불편해하는 것 같아. 은근히 피하는 것 같기도 하고.....
 유정: 난 잘 모르겠는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하여간 너 예민한 건 알아줘야 돼.

- 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 ②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 ③ 상대방의 조언을 받아들여려고 하지 않는다.
- ④ 상대방의 처지나 감정에 공감해 주지 않는다.
- ⑤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탄짓을 하며 건성으로 듣는다.

서술형

19 (가)에서 민아와 민아 엄마가 갈등하게 된 이유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시오.

- 조건 -

- 두 인물의 대화 태도에서 나타나는 공통적 문제를 제시할 것
- '~ 때문이다.' 형식의 완결된 한 문장으로 쓸 것

20 ㉠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은이의 생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민아의 고민을 들어 주는 것이 부담스럽다.
- ② 평소와 달리 힘이 없는 민아의 모습이 걱정된다.
- ③ 발표회 준비를 함께하지 못하게 되어 민아에게 미안하다.
- ④ 자신의 고민을 공감해 주지 않는 민아 때문에 기분이 상하였다.
- ⑤ 엄마와 갈등이 생겨 속상한 마음을 민아가 이해해 주고 편들어 주길 바란다.

[21~24] 다음 만화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21 (가)에서 다은이가 대화하는 태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온화한 표정으로 솔직하고 진지하게 이야기한다.
- ② 옆자리에 앉아 민아의 이야기를 편안하게 들어 준다.
- ③ 민아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려 준다.
- ④ 민아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의 경험을 이야기한다.
- ⑤ 민아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민아를 배려하며 조언한다.

22 (가)에서 추측할 수 있는 민아의 심리를 정리하여 다음 빈 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엄마가 자신에게 잘해 주는 것이 _____,
가끔은 엄마의 지나친 관심과 사랑이 _____.

23 (나)에서 민아 엄마가 처한 상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민아가 스트레스를 받는 까닭을 모르고 있다.
- ② 민아가 자신에게 속마음을 말하지 않는 것을 섭섭해하고 있다.
- ③ 민아가 처한 갈등 상황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모르고 있다.
- ④ 민아에게 잘해 주려고 한 행동이 오히려 갈등의 원인이 되었음을 깨닫고 있다.
- ⑤ 민아와 계속 갈등하는 이유가 민아에게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모르고 있다.

24 (나)에 나타난 다은 엄마의 대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아 엄마에게 적절한 조언을 하고 있다.
- ② 민아 엄마의 생각과 감정을 재진술하고 있다.
- ③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④ 민아 엄마의 말에 집중하며 관심을 보이고 있다.
- ⑤ 민아 엄마의 대화 태도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바른답·알찬풀이

중등 국어 2-1





갈래 학습

01 시

맞보기 문제

6~7쪽

- 1 화자 2 나, 다 3 ① 4 의인법 5 ③ 6 반어법
- 7 (1) × (2) × (3) ○ 8 임 향한

- 1 화자는 시에서 시인을 대신하여 말하는 이로 시인의 생각과 감정, 시의 주제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 2 화자가 시 속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 3 은유법을 사용하여 '해바라기'를 '첫 시약시(색시)'에 비유한 것은 ①이다.
오답 풀이 ② '꽃 피네'를 반복하여 표현하는 반복법이 사용되었다.
 ③ '결별'과 '축복'이라는 모순된 시어를 연결하는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④ '눈'의 흰색과 '산수유'의 붉은색을 대조하는 대조법이 사용되었다.
 ⑤ '~모르겠는가'와 같이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설의법이 사용되었다.
- 4 <보기>의 시는 '플라타너스'에 인격을 부여하여 사람처럼 표현하는 의인법을 사용하였다.
- 5 ③에서 '아'라는 감탄사를 통해 적막한 들뜬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강조하는 영탄법이 쓰였다.
오답 풀이 ①, ⑤ 의인법이 사용되었다.
 ② 직유법이 사용되었다.
 ④ 역설법이 사용되었다.
- 6 말하고자 하는 의도나 감정을 반대로 표현하여 강조하는 표현 방법을 '반어법'이라고 한다.
- 7 (1) 시조는 고려 말엽부터 발달하여 현재까지 창작되고 있다고 하였다.
 (2) 개화기 이후부터 지어진 시조를 현대 시조라고 한다.
- 8 시조는 형식상 종장의 첫 음보가 3음절로 고정된다.

02 소설

맞보기 문제

8~9쪽

- 1 (1) ○ (2) × (3) ○ 2 인물, 사건 3 나, 다, 르 4 (1) ○ (2) ×
- 5 1인칭 관찰자 서술자 6 ② 7 역순행 8 재구성, 사회·문화적 상황

- 1 소설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꾸민 낸 이야기이다.
- 2 바른답·알찬풀이

- 2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을 '인물'이라고 하고, 이러한 인물들이 겪거나 벌이는 일을 '사건'이라고 한다.
- 3 소설의 배경을 통해 인물 간의 갈등 양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4 서술자가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작품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
- 5 소설 속 인물이 '나'로 등장하여 다른 인물이나 사건들을 지켜 보며 서술하고 있으므로 '1인칭 관찰자 서술자'이다.
- 6 소설에서 인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시작되는 단계는 '전개'이다.
- 7 <동백꽃>은 현재의 사건을 서술한 후 '나'와 점순이가 갈등하는 원인이 되는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 8 작가, 독자, 사회·문화적 상황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03 수필

맞보기 문제

10쪽

- 1 형식 2 ③ 3 (1) ○ (2) × (3) ○ 4 ⑤

- 1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하거나 느끼고 생각한 것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쓴 글은 수필이다.
- 2 수필은 산문 문학이다. 운율은 운문 문학의 요소에 해당한다.
- 3 (2) 수필은 정해진 형식의 제약이 없어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글이다.
- 4 사건의 진행에 따라 고조되는 갈등 관계를 파악하며 읽는 것은 소설, 희곡, 시나리오를 감상하는 방법이다.

04 희곡·시나리오

맞보기 문제

11쪽

- 1 연극 2 ③ 3 절정 4 (1) ○ (2) ○

- 1 희곡은 연극의 무대 상연을 목적으로 쓴 대본이다.
- 2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거의 없는 것은 시나리오에만 해당하는 특징이다.
- 3 '절정'에서 갈등과 대립이 최고조에 이른다.

05 설명문·보고서

맞보기 문제

12쪽

1 정보 2 ㉓ 3 ㉕ 4 ㄱ, ㄴ

- 1 설명문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어떤 대상을 구성 요소나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는 방법을 '분석'이라고 한다.
- 3 조사 결과는 보고서의 구성 단계 중 '중간' 부분에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4 보고서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확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해야 한다. ㄷ의 독특하고 개성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수필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ㄹ의 문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을 포함해야 하는 것은 건의문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06 논설문·건의문

맞보기 문제

13쪽

1 설득 2 ㉕ 3 ㄱ, ㄷ 4 (1)○ (2)×

- 1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글을 논설문이라고 한다.
- 2 논설문의 '본론'에서는 주장이나 의견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논리적으로 제시된다.
- 3 건의문에는 건의를 받는 특정한 대상이 있으며(ㄱ), 문제 상황과 요구 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난다(ㄷ).
- 4 (2) 건의문을 읽을 때는 건의하는 내용의 기발함, 창의성 여부보다는 설득력이 있고 수용할 만한지를 판단하며 읽어야 한다.

1 경험의 발견과 공감

01. 년 바보다

단원 맞보기

16쪽

1 ㉠-㉢-㉣-㉦ 2 반어 3 ㉡ 4 (1)○ (2)×

- 3 ①, ③은 운율, ②는 도치, ⑤는 역설 표현에 관한 설명이다.

내용 분석

17쪽

1 나 2 모범적 3 긍정적

표현 분석

17쪽

바보, 본받고, 반어, 바보, 운율

이해와 탐구

18~21쪽

1 (1) 개구멍, 검댕 칠, 전근, 허풍, 웃음 (2) 직접적, 긍정적 (3) 관찰, 순수 2 (1) 부정적, 반대 (2) 강조 3 (1) 가락 (2) 강조 4 (1) 두엄, 파리, 백송골, 자빠짐 (2) 약자, 허세 (3) 백성, 탐관오리, 권력자 (4) 부정적/비판적, 탐관오리, 비판/풍자 (5) 풍자, 웃음 (6) 음보, 반복

문제 해결과 적용

22쪽

1 (1) 허위 (2) 발, 전화, 풍자, 웃음

학습 활동 응용

18~22쪽

01 ㉡ 02 ㉕ 03 ㉕ 04 반어 표현,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한다. 05 ㉡ 06 반복 07 ㉡ 08 ㉓ 09 ㉡ 10 ① 11 두꺼비 12 ① 13 ㉓ 14 ㉡, ㉕ 15 ㉡ 16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지 말자. 17 ㉓ 18 ㉓

- 01 '너'가 혼자 있는 친구에게 먼저 말을 거는 내용은 이 시에 나오지 않는다.
- 02 1연에서는 '너'의 행동을 열거하며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을 반어 표현을 써서 반대로 표현하였는데, 2연에서는 '그런 네가 좋아서 그림자처럼 / 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 나는?'이라는 시구를 통해 '너'를 좋아하는 '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03 이 시의 화자인 '나'는 바보 같은 정도로 착하고 마음이 고운 '너'를 좋아하고 있다. 그러나 '너'가 상처를 입을까 봐 걱정하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 04 속으로는 좋으면서 겉으로는 '바보'라고 하는 것은 속마음을 반대되게 표현하는 반어 표현의 특징이다.
- 05 '나'의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함으로써 '너'를 좋아하는 '나'의 마음과 '너'의 좋은 점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 06 이 시에서는 '정말', '바보', '너는 참 바보다.' 등의 시어와 시구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였다.
- 07 이 시에서는 특정 시어와 시구를 반복하여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은 '나'의 마음을 강조하였다.
- 08 이 시조는 동물에 빗대어 대상을 우의적으로 표현하였을 뿐, 속마음과 반대로 드러내는 반어 표현은 사용되지 않았다.
- 09 두꺼비는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앉아 있으므로 파리를 잡기 위해 올라간 것은 아니다.
- 10 두꺼비는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앉아 자신이 강자임을 드러내며 거드름을 피우다가도 백송골이 나타나자 두려움에 떠다. 이를 통해 약자에게는 강하고 강자 앞에서는 약한 두꺼비의 태도를 알 수 있다.
- 11 이 시조는 탐관오리를 상징하는 두꺼비가 힘없는 백성을 상징하는 파리를 물고 있다가 더 힘이 있는 권력자를 상징하는 백송골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모습을 통해 탐관오리의 허세를 비판하였다.
- 12 두꺼비는 겉으로는 강한 척 허세를 부리지만 실제로는 겁이 많아 백송골을 보고 놀라 두엄에서 뛰어내리다가 자빠지는 등 우스꽝스럽게 표현되고 있다.
- 13 풍자는 보통 웃음을 유발하기 때문에 작품의 분위기를 밝고 가볍게 만든다.
- 14 이 시조는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고, 음보마다 3~5자의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15 이 광고는 경찰이 사람들의 장난 전화로 인해 출동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표현하고 있다.
- 16 경찰관이 어디론가 뛰어가는데 남자가 수화기처럼 경찰의 발을 붙잡고 있는 광고의 사진과 '잘못 건 112 신고 전화 긴급 출동의 발목을 잡습니다.'라는 문구를 통해 광고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다.
- 17 이 광고는 장난 전화를 하는 남자의 손에 경찰관의 발이 수화기처럼 잡혀 있는 모습을 통해 웃음을 유발함으로써 허위 신고를 하는 사람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 18 이 광고의 주제는 경찰서에 허위 신고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따라서 '당신의 허위 신고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은 속마음을 반대로 표현하는 반어 표현을 활용한 것이다.



작품 개관 나, 운율, 반어
 시의 짜임 너, 나
 시에 드러나는 '나의 경험과 태도' 교문, 눈물, 웃음, 그림자, 긍정적 반어의 표현 방법과 효과 부정적, 강조
 운율의 표현 방법과 효과 바보, 본받고, 강조
 풍자의 개념과 표현 효과 간접적, 웃음, 비판 의식

01 ④ 02 ② 03 ⑤ 04 너는 참 바보다. / 너는 정말 정말 바보다. 05 착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너'를 좋아하여 닮고 싶다. 06 ③ 07 ① 탐관오리, ㉠ 백성, ㉡ 더 힘이 있는 권력자 08 모 처라 날랜 나이니 망정이지 어혈 질 뻘뻘구나 09 ③ 10 ④

- 01 이 시에서는 '바보', '정말' 등의 단어를 반복하고 '너는 참 바보다.'라는 동일한 문장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2 '너'는 가까이에 있는 개구멍으로 빠져나가면 금방일 것을 일부러 돌아서 교문으로 다닌다고 하였다.
- 03 '너는 참 바보다.'라는 표현은 표면적으로는 '너는 참 어리석다.'라는 의미이지만, '너'가 따뜻하고 순수하고 착한 아이라는 '나'의 속마음이 드러나며 '너'가 좋은 아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 04 <보기>에서 할머니는 꼬마를 귀여워하는 속마음과는 반대로 얄밟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반어 표현이 사용된 시구는 '너'를 좋아하면서도 '바보'라고 표현한 '너는 참 바보다.'와 '너는 정말 정말 바보다.'이다.
- 05 1연을 통해 '너'가 착하고 바르게 생활함을 알 수 있고, 2연에서 그런 '너'를 '나'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것으로 보아 '나'는 '너'를 좋아하고 닮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06 (가)는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고 3~5자의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7 (나)에서 선생님은 조선 후기에 탐관오리는 백성들을 괴롭히고 더 힘이 있는 권력자에게는 아첨하였다고 하였다. 조선 후기에 창작된 (가)가 이러한 시대 상황을 반영하였다면, 백송골을 두려워하는 두꺼비(㉠)는 탐관오리를, 두꺼비에게 잡힌 파리(㉡)는 백성을, 두꺼비가 두려워하는 백송골(㉢)은 더 힘이 있는 권력자를 비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08 중장에서 두꺼비는 백송골을 보고 놀라서 풀쩍 뛰다가 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중장에서는 자신이 날쌌 덕에 다치지 않았다고 말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다.

- 09 (다)는 급할 때 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장난이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동을 하지 말자는 내용을 전달하는 광고이다.
- 10 (가)에서는 두꺼비를 희화화하여 풍자함으로써 (다)에서는 경찰의 발을 수화기로 사용하는 사람의 모습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함으로써 웃음을 유발하고 있다. (가)와 (다) 모두 공통적으로 웃음을 유발하여 대상을 비판하는 풍자를 활용하고 있다.

02. 나의 모국어는 침묵

단원 맛보기

26쪽

- 1 떠올린 경험 정리하기 2 (1) × (2) ○ 3 ④ 4 ①

- 3 독자가 대상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것은 풍자 표현의 특징이다.
- 4 ①은 'A는 B이다.'의 형식으로, 원관념과 보조 관념을 연결하여 빗대는 표현 방법인 은유에 해당한다.

핵심 속삭

- P. 27 대화, 불청객
P. 28 대화, 너무 많이 말해, 침묵, 대화, 침묵

제대로 독해 & 문제문 확인

27~28쪽

- 1 ④ 2 침묵은 흥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다. 3 ③ 4 우리의 모국어는 침묵입니다.

- 1 자신을 불청객으로 여긴다고 생각한 것은 글쓴이의 생각일 뿐 인도인들의 생각이 아니다.
- 2 글쓴이는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도인들을 따라 하다가 괴팍하고 거만하다는 평가를 받은 후 침묵은 흥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 3 이 글에서 글쓴이와 인도인들이 갈등을 겪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는다. 인도인들이 자신에게 지어 준 이름에 대해 따지고 싶었다고 한 부분은 글쓴이의 개인적인 농담이라고 볼 수 있다.
- 4 '자기 민족의 언어'라는 뜻의 '모국어'가, 아무 말도 없이 잠잠히 있는 상태인 '침묵'이라는 표현은 모순되어 보이지만, 침묵을 중요하게 여기는 인도인들의 생각이 담긴 역설 표현이다.

이해와 탐구

29쪽

- 1 (1) 반응, 존재, 평화로움, 말해 (2) 침묵, 존재
2 (1) 모국어, 침묵, 모순 (2) 인상적

문제 해결과 적용

30쪽

- 1 (1) 아빠, 도서관, 스마트폰 (2) 책

학습 활동 응용

29~30쪽

- 01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다. 02 ③ 03 ⑤
04 (1) ○ (2) × 05 ④ 06 ① 07 스마트폰으로 인해 책을 읽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문제 제기나 비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강조할 수 있다. 08 ④

- 01 글쓴이는 인도인들에게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인도인식 이름을 얻고 자신이 이 생에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자신의 언어 습관을 돌아보았다.
- 02 인도인들에게 '침묵'은 상대방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의미한다.
- 03 '모국어'가 '침묵'이라는 표현은 겉보기에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를 잘 느낄 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역설 표현이다.
- 04 역설 표현을 사용하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 05 이 만화에서 딸은 아빠에게 스마트폰을 갖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다.
- 06 역설 표현은 문장의 앞뒤 의미가 모순되어야 한다. 도서관은 책을 읽기 위해 존재하는 곳인데, 이를 '책을 읽지 않는 도서관'이라고 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된 표현이다.
- 07 역설 표현은 표현에 담긴 사실이나 진리를 인상적으로 나타내는 효과가 있다.
- 08 역설 표현은 겉으로는 이치에 맞지 않고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을 말한다.

소단원 갈무리

31쪽

- 글의 개관 체험, 감동, 역설
글의 짜임 침묵, 전통, 언어, 인도인
글쓴이의 경험과 그에 따른 깨달음 대화, 거만, 침묵, 평화로움, 말
역설 표현과 그 효과 모순, 말, 인상적



기초가 튼튼해지는 **소단원 다잡기**

32~33쪽

01 ④ 02 ① 03 말보다 침묵이 상대방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04 ①, ⑤ 05 ③ 06 ① 07 그 사람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짓는다. 08 ②

- 01 글쓰기가 인디언들의 행동에 당황한 것은 맞지만 특별히 갈등을 겪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또한 이 글에는 다양한 갈등이 단계별로 드러나지 않으며, 다만 글쓰기가 겪은 일들과 그 경험을 통해 글쓰기가 깨달은 바가 드러난다.
- 02 글쓰이는 인디언들에게 먼저 다가가 자신을 소개하며 대화를 나누려 했으나 인디언들은 글쓰이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서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
- 03 (다)에서 인디언들은 누군가를 만나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기 위해 침묵한다고 하였다.
- 04 (다)에서 글쓰이는 인디언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처음에 침묵하는 것은 그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어설픈 인디언들의 침묵을 흉내 내려다가 과확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 오답 풀이 ㉠ 글쓰이는 상대방을 가장 잘 느끼는 방법은 말이나 대화가 아니라 침묵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 ㉡ 인디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침묵을 한다고 하였다.
 - ㉢ 인디언들은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상대의 존재를 느끼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므로 이를 거만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
- 05 여러 부족으로 이루어진 인디언들은 부족마다 언어가 매우 다르다고 했으며, 그럼에도 자신들의 모국어를 침묵이라고 답한 것은 그것이 진짜 모국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만큼 침묵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이다.
- 06 ㉠은 글쓰이가 인디언들보다 침묵하지 못하고, 인디언들보다 훨씬 말을 많이 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인디언들은 글쓰이에 비해 덜 말하고 침묵할 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 07 글쓰이가 얻은 인디언식 이름은 '너무 많이 말해'이다. 이는 인디언들이 생각하는 글쓰이의 특징이 드러난 이름으로, 이를 통해 글쓰이는 자신이 살면서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음을 반성하고 있다.
- 08 ㉡은 역설 표현을 활용한 예이다. 역설 표현은 겉으로는 모순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표현이므로, 도서관에서 책을 읽지 않는다고 표현한 ㉡가 적절하다.

03. 공감하며 대화하기

단원 맛보기

34쪽

1 감정, 협력적 2 (1) × (2) ○ (3) ○ 3 ⑤ 4 ④

- 3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말하기로, 상대방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는 ⑤와 같은 방법은 적절하지 않다.
- 4 공감하며 대화를 할 때에는 명령적이고 단정적인 어조와 단호한 태도보다는 제안하고 요청하는 어조와 공손하고 진지한 태도로 말하는 것이 적절하다.

제대로 독해 & 문제로 확인

35~43쪽

1 ② 2 ㉠, ㉡ 3 ② 4 판단, 쓸데없는, 걱정, 버릇 5 ⑤
6 ②, ④ 7 ② 8 ⑤ 9 ③ 10 ① 11 ③, ⑤ 12 ⑤
13 ③ 14 ④ 15 ④ 16 ①, ③ 17 ④ 18 ②

- 1 민아는 과제물을 혼자 힘으로 만들고 싶어 하므로 엄마가 도와주지 않아 서운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 2 엄마는 스스로 과제물을 하려는 민아의 생각과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며 과제물을 낚아채고 있다.
 - 오답 풀이 ㉠ 엄마는 민아의 감정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강요하고 있다.
 - ㉡ 엄마는 민아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민아를 다그치고 있다.
- 3 민아는 자신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그 생각을 강요하는 엄마의 태도에 화를 내는 것이다.
- 4 엄마는 민아가 과제물을 만드는 것을 자신의 기준에서 '쓸데없다'고 판단하여 이야기하였고, 민아는 그런 엄마에게 화가 나 버릇없이 쓰아붙이고 있다.
- 5 민아는 자신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손을 뿌리치며 집을 나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하였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는 이러한 행동은 원만한 대화를 방해한다.
- 6 민아 엄마는 민아가 화를 내는 이유를 몰라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민아가 집을 나가서 걱정하였을 것이다.
- 7 다은이는 평소와 다른 민아의 어두운 표정과 기운이 없는 모습에 걱정이 되어 먼저 말을 건 것이다.
- 8 다은이는 민아의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으며 강하게 조인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 9 다른이는 '너희 엄마는 너한테 엄청 잘해 주시니까'라고 말하며 민아가 처한 상황의 긍정적인 면을 이야기하고 있다.
- 10 다른 엄마는 민아 엄마의 말에 맞장구를 쳐 주고 감정에 공감하며 관심을 표현하고 있다.
- 11 민아는 다른이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는 중이므로 다른이가 믿어 주지 않을까 걱정하거나 다른이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2 다른이는 민아에게 자신의 경험을 말해 줌으로써 민아가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여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13 다른이는 민아가 부담을 느끼지 않게 '그냥 우리 집은 그렇다는 얘기가.'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을 강요하지 않는다.
- 오답 풀이** ① 다른이는 민아에게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았다.
 ② 다른이는 민아에게 조언해 줄 뿐 문제를 직접 해결해 주지 않았다.
 ④ '그냥 우리 집은 그렇다는 얘기가.'라고 하며 자신의 조언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지 않았다.
 ⑤ '미안', '그냥 우리 집은 그렇다는 얘기가.' 등의 말을 통해 다른이는 민아가 자신의 조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4 다른 엄마는 민아 엄마가 민아를 유산할 뻔해서 고생했던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
- 15 민아 엄마는 다른 엄마의 말을 떠올리며 민아에게 먼저 미안하다는 쪽지를 건넨다. 이는 자신의 입장만 강요하지 않고 민아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해 보려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민아 엄마가 앞으로 민아를 더 보호하려고 애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 16 다른 엄마는 '민아 엄마는 민아를 사랑해서 뭐든 다 해 주려는 건데 그걸 몰라줘서 섭섭했겠네.'라며 민아 엄마의 생각과 감정을 재진술하고 있다. 또한 자신이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들었던 생각을 말하며 민아 엄마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 17 엄마는 자신의 만들기 솜씨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아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기를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다.
- 18 민아가 도움이 필요하면 엄마에게 먼저 요청하기로 하고, 민아 엄마도 그런 민아를 존중해 주기로 하는 등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두 사람의 갈등이 해소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핵심 속독

P. 37 상황, 가치관
 P. 43 존중

이해와 탐구

44~47쪽

1 갈등, 고민, 위로, 갈등, 이해 2 (1) 공감, 경험 (2) 갈등, 안심 (3) 이해, 대화 3 (1) 관심, 재진술, 경험 (2) 고민 [활동 더하기] 추구, 갈등

문제 해결과 적용

48~49쪽

1 (1) 상, 기쁨, 불편해, 위로 (2) 칭찬, 공감 (3) 집중, 자기중심적, 감정, 충고

학습 활동 응용

44~49쪽

01 ② 02 ⑤ 03 ② 04 이해, 관점 05 ③ 06 민아의 고민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조언을 건네고 있다. 07 ② 08 처지, 이해, 마음 09 (1) ㉠ (2) ㉡
 10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다. 11 ④
 12 ② 13 ③ 14 ③ 15 ④ 16 ③ 17 칭찬, 기쁨
 18 ④ 19 ⑤

- 01 민아와 엄마는 각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달라서 갈등하게 된 것이다.
- 02 민아는 다른이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고 엄마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라는 조언을 듣게 된다.
- 03 다른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민아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었다.
- 04 공감하며 대화하기는 상대방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대화이다.
- 05 다른이는 민아의 표정과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며 대화하고 있다.
- 06 다른이는 민아의 고민을 이해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엄마와 갈등을 겪고 있는 민아에게 조언하고 있다.
- 07 다른이가 민아의 고민을 잘 들어 주고 공감해 주었으므로 민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08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 준다고 느낄 때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10 다른 엄마는 다은이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며 민아 엄마와 공감을 형성하고 있다.
- 11 성주는 다은이의 생각과 감정이 어떠할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말로 재진술하고 있다.
- 12 은호는 아빠 때문에 억지로 축구를 한 것이냐는 찬영의 질문에 '처음엔 아니었어.'라고 대답하였다.
- 13 공감하며 대화하기를 한다고 해서 대화 참여자들이 언제나 원하는 답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 14 형진이는 상을 받은 경훈이가 잘한 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진심으로 축하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
- 15 친구들이 자신을 불편해하는 것 같다는 송이의 말에 유정이는 잘 모르겠다고 하며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것이라고 할 뿐 다른 친구들을 걱정하지 않았다.
- 16 형진이는 경훈이의 마음에 공감해 주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있으며, 유정이는 송이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말하고 있다. 즉 형진이와 유정이 모두 상대방과 공감하며 대화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다.
- 17 경훈이는 교내 발표 대회에서 상을 탄 기쁨을 형진이와 나누고 축하와 칭찬을 받고 싶어서 형진이에게 이야기한 것이다.
- 18 형진이는 경훈이의 말을 끊고 자신의 말을 하지는 않았다.
- 19 송이는 유정이가 자신의 불안하고 힘든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야기한 것인데, 유정이가 문제점을 분석하고 충고만 하려고 하자 기분이 상하였다.

- 01 엄마는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민아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은 근본적으로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 서로를 배려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해 갈등을 겪고 있다.
- 02 (가)에서 엄마는 민아의 말을 끝까지 들어 보지 않고 민아가 하던 발표회 준비를 못 하게 하며 공부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 03 다은이는 민아의 어두운 표정과 축 쳐진 어깨를 주의 깊게 살핀 후 무슨 일이 있느냐며 먼저 말을 걸어 민아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있다.
- 04 다은이는 민아의 표정과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민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한 자세로 대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감하며 말하기를 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해 준다고 느껴, 마음을 열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된다.
- 06 민아는 엄마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야기한다고 하였고, 민아의 엄마는 뭐든지 말하면 도와주겠다고 하였으므로 ⑤는 적절하지 않다.
- 07 상대방의 처지나 생각을 이해하지 않고 상대방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 08 ③은 송이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는 유정이의 의지가 드러나는 말로, 상대방에게 공감하지 못한 말이라고 할 수 없다.
- 09 형진이가 경훈이의 의견을 무시하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 10 (나)에서 유정이는 힘들어하는 송이의 상황에 공감하지 못하고 문제 상황을 분석하고 충고하려다가 송이의 기분을 상하게 하였다.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소단원 갈무리

50쪽

웹툰의 개관 갈등, 공감
 웹툰의 주요 장면 민아, 조연, 위로, 대화
 민아 엄마와 민아의 갈등 원인과 해소 생각, 말, 공감대
 다은이의 대화 태도와 그에 따른 효과 눈, 고개, 진술한
 다른 엄마가 공감하며 대화하기 위해 활용한 방법 관심, 재진술, 공유

기초가 튼튼해지는 소단원 다잡기

51~53쪽

01 ②, ④ 02 민아의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였다. 03 ③ 04 ④ 05 ㉠: ㉡, ㉢: ㉣, ㉤: ㉥ 06 ⑤
 07 ④ 08 ③ 09 ⑤ 10 상대방의 문제점을 분석하거나 충고하려고 하지 않고 공감하기 위해 노력한다. / 자신의 관점에서만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와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내용이 탄탄해지는 대단원 마무리

54~59쪽

01 ② 02 ④ 03 ③ 04 ⑤ 05 '바보', '정말', '너는 참 바보다.' 등을 반복함으로써 '너'의 행동을 본받고 싶은 '나'의 마음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06 ③ 07 ③ 08 ③ 09 ② 10 ④
 11 ⑤ 12 ④ 13 글쓴이는 사람들로부터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들으면서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14 ⑤ 15 ⑤ 16 ⑤
 17 말보다 침묵으로 상대방을 더 잘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8 ④ 19 서로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기 때문이다. 20 ②
 21 ③ 22 고맙지만, 부담스럽다 23 ④ 24 ⑤

- 01** 1연에서는 화자인 '나'가 관찰한 '너'의 모습을 나열하며 시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2연에서는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02** 이 시의 화자인 '나'는 착하고 바르게 생활하는 '너'를 본받고 싶어 할 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는 않는다.
- 03** 이 시에서 '너'는 길가에 핀 흔한 꽃인 민들레를 한참 바라본다고 하였으므로 세심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는 드러나지 않았다.
- 오답 풀이** ① 얼굴에 검댕 칠을 한 연탄장수 아저씨에게 인사하고, 선생님과의 헤어짐을 서운해하며, 길가의 작은 꽃에도 관심을 가지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②, ⑤ 친구가 거짓으로 허풍을 떠는 말도 잘 들어 주고 놀리는 말에도 화내지 않고 웃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④ 쓰레기는 반드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정해진 출입문인 교문을 이용하는 모습에서 알 수 있다.
- 04** ㉠('너는 참 바보다.')은 '너'를 좋아하는 '나'가 '너'에게 '바보'라고 말하는 반어 표현을 쓴 것으로, '너'가 바르고 마음이 고운 아이이며, 닳고 싶은 존재라는 점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한편, 대상을 비틀거나 비꼬아서 사회나 개인의 부정적인 모습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풍자 표현의 특징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05** 이 시는 특정 단어, 문장, 문장 구조 등을 반복함으로써 운율을 형성하고 이를 통해 '너'에 대한 '나'의 마음을 더욱 강조하는 효과가 있다.
- 06** (가)의 시조는 '두꺼비(3) 파리를 물고(5) 두엄 위에(4) 치달아 앉아(5)'와 같이 3~5자의 일정한 글자 수를 반복하고, '두꺼비∨파리를 물고∨두엄 위에∨치달아 앉아'와 같이 일정한 음보를 반복하여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07** (나)의 선생님 설명을 토대로 할 때, 백송골이 탐관오리도 무서워하는 더 힘이 있는 권력자들을 의미하는 것은 맞지만, 이들이 백성들을 위해 탐관오리를 벌주는 정의로운 계층인지 확인할 수 없다.
- 08** 반어 표현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다. 따라서 허위 신고를 하지 말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광고에서 '허위 신고 덕분에'라는 표현을 쓴 ㉢이 적절하다.
- 09** (가)와 (다)는 개인 또는 사회의 부정적 현상, 모순, 어리석음 등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기 위해 웃음을 사용하는 풍자 표현을 통해 대상의 부정적 측면을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비판하고 있다.

- 10** 이 글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 속에서 얻은 깨달음이나 생각 등을 진솔하게 표현한 수필이므로, 상상력을 더해 서 이야기를 만들어 내지는 않는다.
- 11** (가)에서 글쓴이가 인디언 노인들과 흥미 있는 대화를 주고 받으리라 기대했다는 것, (나)에서 그런 글쓴이에게 인디언들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오답 풀이** ① (가)에서 글쓴이가 미국의 인디언 축제에 참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② (나)에서 처음 만났을 때 먼저 침묵한 것은 글쓴이가 아닌 인디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③ (나)에서 인디언들이 이방인의 침입을 부정 타는 일이라고 여긴다는 것은 글쓴이의 추측임을 알 수 있다.
 ④ 글쓴이가 어렸을 때 인디언들과 함께 살았는지는 이 글에 드러나지 않는다.
- 12** (다)에서 인디언들이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침묵하는 이유는 자기 앞에 있는 존재를 가장 잘 느끼기 위해서임을 알 수 있다.
- 13** (라)에서 글쓴이가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인디언의 행동을 흉내 내며 침묵하자 괴팍하고 거만한 사람이라는 평을 듣게 되었다는 것과, 이 경험을 통해 침묵은 흉내가 아니라 존재의 평화로움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 14** (다)에서 라코타족은 불행한 상황에 처한 사람과 대화를 시작할 때 잠시 침묵하는 것이 진정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것일 뿐, 아예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15** 글쓴이는 인디언들과 함께하면서 '너무 많이 말해'라는 이름을 얻고 그들의 언어 습관을 경험한 뒤, 자신의 언어 습관을 성찰한 것이다.
- 16** ㉠에는 겉보기에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중요한 사실이나 진리를 담은 역설 표현이 사용되었으며, 이 표현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나타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17** ㉡은 인디언들이 '침묵'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인상적으로 나타낸 문장으로, 말보다는 침묵을 통해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18** (가)의 민아 엄마는 민아의 과제를 쓸데없는 일이라고 하였고, <보기>의 유정이는 자신의 입장에서 송이의 이야기를 판단하며 나무라고 있다. 즉,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이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대방의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며 협력적으로 소통하는 '공감하며 대화하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 19 민아와 민아 엄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대화했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 것이다.
- 20 다은이는 평소와 다른 표정과 상태를 보이는 민아를 주의 깊게 살피며 왜 기운이 없는지 묻고 있으므로 민아를 걱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1 민아의 고민을 듣고 상황을 이해한 다은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엄마에게 서운한 것을 말하면 갈등이 풀어질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민아가 하지 말아야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려 주지는 않았다.
- 22 ‘엄마가 나한테 잘해 주는 건 정말 고마운데, 가끔은 너무…….’라는 대사에서 민아가 엄마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가끔은 엄마의 지나친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3 민아 엄마는 다은 엄마와의 대화를 통해 민아에게 무엇이든 최고로 잘해 주고 싶어 했던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민아에게 스트레스가 되어 서로 갈등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있다.
- 24 다은 엄마는 민아 엄마의 말에 집중하고 공감하며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진심을 담아 조언해 주었지만, 민아 엄마의 대화 태도에 대해 지적하지는 않았다.

2 읽고 쓰는 즐거움

01. 과학자의 서재

단원 맛보기

62쪽

1 ㉔ 2 ㉕ 3 (1) ○ (2) × (3) ○ (4) ×

- 1 책 읽기가 학업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학업 성적의 향상이 읽기의 가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 2 독서량, 독서 시간, 독서 태도, 독서 방법, 독서 경험 등을 돌아보면 바른 독서 습관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책을 빠르게 읽는 것과 바른 독서 습관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㉕는 읽기 생활을 점검하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핵심 속독

- P. 63 빈둥거림, 재미, 호기심
- P. 65 태도, 행동, 변화
- P. 66 감성적, 지식, 정보, 정신세계
- P. 67 개미, 통나무, 사회 생물학

제대로 독해 & 문제로 확인

63-67쪽

1 ㉓ 2 ㉕ 3 ㉓ 4 글쓴이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져서 색다른 감동을 느꼈기 때문에 5 ㉕ 6 ㉑ 7 ㉓ 8 ㉕ 9 ㉔
10 ㉔ 11 ㉔ 12 ㉔ 13 이타주의

- 1 글쓴이는 빈둥거리는 시간에 상상력이 자라날 수 있으므로 요즘 아이들에게도 빈둥거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 2 글쓴이는 백과사전의 장점이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을 필요 없이 아무 쪽이나 펼쳐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하였다.
- 3 《사랑의 학교》에는 ‘친구와의 우정,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두터운 정, 부모님의 깊은 사랑, 어려움을 극복해 내는 의지, 바른 것을 지향하는 정의로운 마음’ 등이 들어 있다고 하였다.
- 4 글쓴이는 어린 시절에 감명 깊게 읽었던 《사랑의 학교》를 어른이 된 후에 다시 읽으며 읽는 내내 눈시울을 붉혔고 끝내는 흐느꼈다고 하면서, 자신의 역할과 위치가 달라져서 색다른 감동을 느끼게 되었다고 하였다.
- 5 글쓴이는 ‘좋은 책은 언제 읽어도 그때그때 새로운 감동을 주는 것이며, 그 사람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하였다.